

정답 ·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정답과 해설

교과서 갈래 특강

1 시

본문 6쪽

개념 확인 **꼭** 꼭

- 1 운율 2 공감각 3 의도 4 ③

- 1 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 2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이나 느낌을 심상이라고 한다. 심상은 감각에 따라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으로 나누며,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된 공감각적 심상도 있다.
- 3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이를 가리키는데, 화자에 따라서 시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화자의 특성을 통해 시인이 화자를 설정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깊이 있게 시를 이해할 수 있다.
- 4 〈보기〉에서 설명하는 표현법은 ‘비유’이며 ③에서 ‘나’를 ‘찬밥’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2 소설

본문 7쪽

개념 확인 **꼭** 꼭

- 1 ○ 2 × 3 ○ 4 1인칭 주인공

- 1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인 인물, 인물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이나 상황인 사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인 배경이다.
- 2 소설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나뉘며 이중 갈등이 심화되고 위기감이 조성되는 단계는 위기이다.
- 3 갈등은 인물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얹혀 있는 상태인 내적 갈등과 인물과 외부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인 외적 갈등이 있다.
- 4 시점은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 태도, 관점을 뜻하며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3 주장을 담은 글

본문 8쪽

개념 확인 **꼭** 꼭

- 1 타당성 2 이유 3 ② 4 연역

- 1 주장을 담은 글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밝혀 쓴 것으로 설득성, 타당성, 주관성, 체계성, 명확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2 이유는 주장을 내세우게 된 까닭을 말하며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다.
- 3 주장은 글쓴이의 주된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며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을 지닌다.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야 독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말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4 〈보기〉에서는 진리인 ‘모든 사람은 죽는다.’를 전제로 하여 ‘소크라테스는 죽었다.’라는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논증 방법을 연역이라고 한다.

4 정보를 전달하는 글

본문 9쪽

개념 확인 **꼭** 꼭

- 1 객관적 2 명료성 3 (가) 나열 (나) 구분 4 인과

- 1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사물, 정보, 지식 등에 대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 2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사실성, 객관성, 체계성, 명료성, 평이성을 지니며 이 중에 정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명료성이다.
- 3 (가)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말을 사용하여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나)에서는 나무를 잎 모양에 따라 침엽수와 활엽수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한다.
- 4 〈보기〉에서는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이라는 원인과 가짜 뉴스 증가 및 사회 혼란이라는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5 매체

본문 10쪽

개념 확인 **꼭꼭**

1 말, 글 2 재현 3 비판 4 ②

-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말은 직접 만나서 소통해야 하므로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문자 언어를 사용하는 글은 지식을 기록, 축적, 보전할 수 있게 한다.
-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 사실, 현상을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매체를 통하여 다시 나타내는 것을 재현이라고 한다.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반영된 재현물이다.
-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반영된 재현물이므로 매체 자료가 전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 매체를 통해 재현된 정보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매체 정보가 있는 그대로의 정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6 시나리오

본문 11쪽

개념 확인 **꼭꼭**

1 시나리오 2 지시문 3 × 4 ○ 5 × 6 ②

- 연극을 하기 위해 쓴 대본은 '희곡',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쓴 각본은 '시나리오'라고 한다.
- 시나리오에서 인물의 말을 쓴 부분을 '대사', 인물의 행동과 표정, 카메라의 조작 등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을 '지시문'이라고 한다.
-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여 현장성이 강한 희곡과 달리 시나리오의 촬영을 전제로 하므로 순서를 편집하거나 그래픽 등의 효과를 넣을 수 있어 시간, 공간, 등장인물 수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 시나리오와 희곡 모두 갈래가 '극'으로, 영상이 상영되거나 무대에서 작품이 상연되는 동안 관객이 배우들의 연기를 관람하므로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이 현재 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 시나리오는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극이 전개되므로,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F.I.'는 'Fade-in'의 줄임말로 어두웠던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효과를 뜻한다.

1 세상을 보는 눈, 이야기를 전하는 목소리

(1) 시의 화자

본문 14~15쪽

개념 확인 **꼭꼭**

1 화자 2 ① 주제 ② 분위기 3 의인화 4 ⑤
5 ① 6 ③

확인 문제

본문 19쪽

1 ② 2 ③ 3 ④ 4 ③ 5 파도를 헤쳐 나가는
용감한 은빛 물고기처럼 6 ④

- 이 시의 화자는 '나'로 제시되어 있으며, 학교, 교실 등의 단어를 통해 화자가 학생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이 시의 화자는 '은빛 물고기'가 아닌 '나'로 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이 시의 화자는 어린 학생으로 성인인 시인과는 다른 존재로 설정되었다.
- 1연에서 화자는 새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였다.
- '나'는 아직 어리지만 2연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연의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슬퍼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③의 집을 잃은 아이들에게 집을 지어 주는 일은 큰 힘이 필요한 일로, '나'가 할 수 없는 일과 유사한 성격의 일에 해당한다.

- 설거지는 '나'의 나이를 특징하는 시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② '학교'와 '교실'은 화자의 신분이 학생임을 알 수 있는 시어이다.
- '용돈'을 받아 쓰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아직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어린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 화자가 어리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시어에 해당한다.

- 1연과 2연의 대조를 통해 2연의 할 수 있는 일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2연에서는 '나'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나열하고 있다.
- 이 시는 같은 시어를 반복하여 반복을 통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⑤ 3연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개념 플러스

나열법의 개념과 효과

개념	계통이 같거나 비슷한 것들을 순서대로 늘어놓아 표현하는 방법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특정 내용을 강조함. 다양한 요소를 나열하여 시의 내용을 더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만들. 반복되는 구조와 어휘를 통해 시의 운율과 리듬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함.

5 [사술형] 4연에서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시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파도를 헤쳐 나가는 물고기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작지만 파도에 맞서는 물고기의 모습을 반짝이고 빛나는 존재로 묘사하였다.

6 '나의 길'은 2연과 3연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의 주변 사람, 더 넓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전체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추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2연에는 화자가 남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이 나와 있을 뿐, 도전하고 싶은 다양한 일의 내용이 나열된 것은 아니다.
- ② 1연에서 화자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4연에서 화자가 가고 싶은 '나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
- ③ 2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자리 양보하기, 용돈 삼천 원 기부하기 등은 '나'를 희생하여 남을 돕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4연에서 '나'가 지향하는 '나의 길'의 핵심은 타인을 돕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이 시에서 화자는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해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20~23쪽

1 ① 2 ④ 3 ⑤ 4 ③ 5 ② 6 ① 7 ②

1 화자는 1연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2연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조하여 나타내고 있다. 새들의 말을 이해하는 일은 1연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2 '은빛 물고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파도를 헤쳐 나간다는 내용이 시에 드러나 있지만, 이는 재빠르게 실행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오답 해설

- ① 4연의 '나는 아직 어리지만'을 통해 '은빛 물고기'는 아직 어리고 작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②, ③ 4연의 '파도를 헤쳐 나가는 용감한', '온몸으로 물보라를 일으키며'를 통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남을 배려하고 돕는 삶을 실천하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4연의 '갈 수 있어'를 통해 자신의 다짐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화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은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어린 청소년도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실천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태도는 작은 일이지만 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는 다짐이다.

오답 해설

- ① 용돈을 더 달라고 졸라서 기부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남의 도움

을 통해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화자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기 위해 다짐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어리지만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가족을 우선시해야겠다는 다짐은 이 시의 주제와 어긋난다.

4 1연과 2연의 대조를 통해 화자는 어리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설명은 화자에 대한 내용에 어긋난다.

5 <보기>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화자가 성인으로 바뀌면서 주제와 분위기에 변화가 있다. 원래 시는 청소년 화자를 통해 씩씩하고 의지적인 어조를 사용하였고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에 대한 또래 독자들의 공감을 형성하였다. 반면 <보기>는 성인 화자의 부드러운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였고 선행을 권장하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시의 주제와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6 시인은 청소년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또래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독자와 거리를 두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7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남을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하지만 숙제는 이를 부여받은 이가 수행해야 하는 일이므로, 친구의 숙제를 대신 해 주는 것은 진정으로 친구를 위하고 배려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정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24~27쪽

1 ① 2 ⑤ 3 ④ 4 ④ 5 ③

1 이 시는 귀뚜라미를 의인화한 화자가 '가을'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여름'을 기다린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오답 해설

- ② 이 시의 화자는 의인화된 귀뚜라미이다.
- ③ 2연과 3연을 통해 귀뚜라미가 현재 사는 곳을 알 수 있다.
- ④ 1연의 '내 울음'을 통해 시적 화자가 '나'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2, 3연 각각의 마지막 행을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귀뚜라미의 소망을 알 수 있다.

2 '타진 소리'는 귀뚜라미의 울음을 빗댄 표현이고, '토하는 울음' 역시 여름철 귀뚜라미의 구슬픈 소리를 뜻하므로 둘은 같은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 3 귀뚜라미는 가을을 대표하는 곤충이다. 여름을 견디고 있는 귀뚜라미를 화자로 설정한 것은 가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독자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② 우렁찬 울음소리, 여름을 즐기는 모습은 귀뚜라미가 아닌 매미의 특성이다.
 ③ 귀뚜라미는 힘든 현실을 견디며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화자를 형상화하고 있다.
 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현재를 괴롭고 힘들게 인식하고 있지만, 언젠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이를 견디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괴로운 현실에 좌절하고 있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 4 화자는 2연과 3연의 마지막 행에서 현재는 힘든 상황이지만, 언젠가 자신의 때가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⑤ 현재는 여름으로 매미의 우렁찬 소리에 귀뚜라미의 소리가 묻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의 섭리로 매미가 의도한 것은 아니며, 귀뚜라미 역시 지금은 자신의 때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
 ② 남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은 드러나 있지만,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지나 태도는 나와 있지 않다.
 ③ 귀뚜라미의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은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발길에 눌러 우는' 등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데, 귀뚜라미는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견디고 있다.
- 5 시의 화자는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시 속의 상황이나 주제 또는 분위기를 전달하는 존재이므로 시에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존재한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29쪽

- 1 -쟁이 2 ㉠ 온 힘 ㉡ 온 누리

- 1 접미사 '-쟁이'와 자주 혼동하는 '-장이'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옹기장이', '간판장이'로 쓰인다.
- 2 '온 힘'은 관형사 '온'이 체언 '힘'을 수식하는 것이며 '온 누리'도 관형사 '온'이 '세상'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인 '누리'를 수식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단어 사이를 띄어 써야 한다.

개념 플러스

접두사 '온-'과 관형사 '온'

- 접두사 '온-': '꼭 찬', '완전한' 따위의 뜻을 더해 어근과 결합한다. 형성된 단어는 사전에 등재된다.
- 관형사 '온': '전부의, 또는 모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관형사는 단어이므로 뒤에 오는 체언과 띄어 써야 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32~33쪽

- 01 ⑤ 02 ④ 03 ④ 04 ① 05 ⑤ 06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삶을 뜻한다. 07 ② 08 ③ 09 ② 10 ②
 11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 01 시에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노래하는 듯한 말의 운율과 리듬을 갖는 것이 시의 특징이다.

오답 해설

①은 시조, ②는 설명하는 글, ③은 주장하는 글, ④는 소설에 해당한다.

- 02 이 시의 화자는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라는 표현을 통해 씩씩하고 당찬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는 삶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② 3연에 남을 배려하고 돕는 삶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다.
 ③ 1연을 통해 '나'는 평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⑤ 2연에서 '나'는 작은 일들이지만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 03 2연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다. ④의 회사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돕는 삶을 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태도는 이 시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돕고 배려하는 삶과 거리가 멀다.
 ② 원산지를 숙여서 판매하는 일은 남을 돕거나 배려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에어컨을 켜 놓고 공부하는 것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시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와 거리가 멀다.
 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실천을 다짐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가수 지망생의 삶의 태도는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 04 1연은 할 수 없는 일이, 2연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나열되어 있다. 시인은 두 연을 대조하여 '나'가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05 '파도를 헤쳐 나가는'과 '용감한'에서 주위에 굴하지 않고 씩씩하고 당차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오답 해설

- ① 어려움을 이겨 내는 존재라는 의미이지, 강자에게 맞서 승리한다는 존재는 아니다.
 ② 화자는 '파도'를 헤쳐 나가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③ 다른 사람의 비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미에 가깝다.
 ④ '은빛'은 남들에게 주목받는 멋진 겉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태도가 빛나는 삶이라는 것을 뜻한다.

06 [서술형] 3연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07 시인은 청소년 화자를 설정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아직 어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ㄷ). 시인은 이러한 화자가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또래 독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ㄱ).

08 귀뚜라미가 현재 있는 곳은 '차가운 바닥',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땅 밑'이며, 귀뚜라미의 처지를 '숨 막힐 듯', '발길에 눌려'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귀뚜라미의 현실은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의 화자는 귀뚜라미이다.
- ②, ⑤ 다른 존재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은 시에 드러나 있지 않으며 귀뚜라미는 힘든 상황을 견디며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 ④ 귀뚜라미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이 시에서는 차분하고 애상적인 어조가 느껴진다.

09 귀뚜라미가 사는 곳은 매미가 사는 '높은 가지'와 대조되는 공간으로 '차가운 바닥',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 '땅 밑'으로 묘사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시에는 자신의 시절인 여름을 누리는 매미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 화자가 매미 소리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다.
- ③, ⑤ '타전 소리'와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은 모두 지하도에서 자신의 생존을 알리는 귀뚜라미의 울음으로, 아직 노래가 되지 못한 소리이다.
- ④ 가을을 간절히 기다리는 존재는 귀뚜라미이다.

10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 수 있을까.'의 설의적 표현은 2연과 3연의 마지막 행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귀뚜라미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매미-여름-높은 가지'와 '귀뚜라미-가을-지하도'가 대조적 의미 관계를 형성하여 귀뚜라미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이 시에는 '소리', '울음', '귀뚜라미 뚜르르' 등 청각적 심상을 나타내는 시어가 사용되었다.
- ④ 이 시는 '~ 수 있을까.'라는 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길 바라는 귀뚜라미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이 시는 가을을 '어린 풀쭉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날이라고 표현하여 활유법과 의인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11 [서술형] 화자의 소망은 2연과 3연의 마지막 행의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평서형 문장으로 바꾸면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리고 싶다.',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이고 싶다.'가 된다. 즉 화자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하며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음이 드러난다.

(2) 소설의 서술자

본문 34~35쪽

개념 확인

- 1 서술자 2 ① 1 ② 3 3 ② 4 × 5 ○
6 직접적 제시 7 간접적 8 ○ 9 ②

확인 문제

본문 38~51쪽

- 1 ③ 2 ② 3 ⑤ 4 ① 5 ⑤ 6 나를 전
감자 쪼깐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7 ⑤ 8 ⑤ 9 ④ 10 ②, ⑤ 11 ⑤ 12 자신
의 마음을 담은 감자를 거절당한 것이 화가 나서 복수하고자
한다. 13 마름, 배재 14 ③ 15 ⑤ 16 ②
17 '나'의 가족이 점순네에게 땅을 빌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점순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18 ⑤ 19 ④
20 ④ 21 ③ 22 ③ 23 ② 24 ⑤ 25 ④
26 ④ 27 ① 28 ③ 29 ④ 30 점순네 닭을 죽
여서 '나'의 집에 빌려준 땅을 빼앗길까 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31 ② 32 ②

1 이 소설의 서술자는 소설의 주인공인 '나'이다.

2 ①의 닭싸움은 점순이가 키우는 수탉과 '나'의 수탉 사이에 벌어졌다.

오답 해설

- ① '나'와 점순이는 모두 17살로 동갑이다.
- ③ ②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 ④ '나'는 나무를 하러 가는 길에 닭싸움을 목격하였다.
- ⑤ ②에서 '나'는 닭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점순네 닭을 지게 막대기로 후려치고 싶었으나 참고 헛매질로 떼어난 놓았다.

3 덩치가 크고 사나운 점순네 닭은 적극적인 점순이의 모습을, 덩치가 작은 '나'의 닭은 소극적인 '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①에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실뻑하게 생겼다고 묘사되어 있으며, 이에 반해 '나'의 닭은 덩저리가 작다고 묘사되어 있다.
- ② ①에 '나'의 닭이 점순네 닭에게 계속 쪼이며 공격당하기만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 ③ ②를 통해 닭싸움은 점순이가 일부러 붙여 뺏음을 알 수 있다.
- ④ ②에서 '나'는 닭싸움을 말리기 위해 점순네 닭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망설이는 모습만 나타나 있을 뿐, 닭싸움으로 인해 점순네 수탉이 다칠까 봐 염려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4 '나'가 나무를 하러 가거나 '나'와 점순이의 집에서 닭을 키우는 모습을 통해 소설의 배경이 농촌임을 짐작할 수 있다.

5 ①~④은 소설에서 벌어진 일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1인칭, 3인칭 시점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서술이다. 반면 ㉔에는 점순네 답을 때리고 싶은 주인공인 '나'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 드러난 부분은 ㉔에 해당한다.

6 [서술형] 이 소설은 과거 회상을 통해 현재 벌어진 닭싸움이 시작된 이유를 알려 준다. '나흘 전'을 통해 해당 부분이 4일 전 벌어졌던 일에 대한 회상임을 알 수 있다.

7 3에서 '나흘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 못한 것은 없다.'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자신이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3, 4에는 '감자'로 인한 '나'와 점순이 사이의 외적 갈등이 주된 사건으로 나타나 있다.
- ② 점순이는 '나'에 대한 이성적 호감으로 '나'에게 말을 붙이고, 자신의 마음을 '감자'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 ③ 3에서 '나'는 울타리를 엮는 데 점순이가 와서 '쌈이질'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나'는 점순이의 행동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점순이가 자신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4에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감자를 거절하는 '나'의 모습에서 점순이가 감자를 주며 한 말로 인해 '나'의 마음이 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8 단박에 감자를 거절하는 행동과 말투에서 '나'의 무뚝뚝한 성격이 드러난다. 또한 점순이가 감자를 준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에서는 어리숙함을 엿볼 수 있다.

9 점순이가 '나'에게 오해를 받은 일은 없으므로 '억울함'은 ㉔에서 점순이가 느꼈을 감정으로 적절하지 않다.

10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이므로 '나'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건과 '나'의 속마음을 자세하게 서술할 수 있다. 반면 '나' 이외에 다른 인물의 속마음은 알 수 없으므로, 눈치 없는 '나'가 점순이의 속마음과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설정하여 독자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점순이와 같은 다른 인물의 속마음을 자세하게 서술할 수 없다.
- ③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점순이의 속마음을 객관적인 태도로 묘사할 수 없다.
- ④ 사건의 전후 사정, 관련된 등장인물들의 속마음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3인칭 전지적 시점이어야 한다.

11 6에 서술된 '나'의 가족이 점순네에게 굶질거리야 하는 상황을 통해, '나'는 “느 집엔 이거 없지?”라는 점순이의 말을 자신을 무시하고 생색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점순네는 마름이고, '나'의 집은 소작농이므로, 점순네가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 ② '나'의 가족은 이 마을의 토박이가 아니라 나중에 이사를 왔으며, 그로 인

해 살 곳이 없어 점순네에게 집터를 빌렸다고 나와 있다.

- ③ '나'가 생각한 평소 점순이의 성격을 서술하였을 뿐, 점순이에 대한 '나'의 감정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 ④ '나'의 부모님은 '나'와 점순이가 사귀면 점순네 부모님이 싫어하므로, '나'에게 점순이와 거리를 두고 지낼 것을 당부하였다.

12 [서술형] 점순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가 섭섭하기도 하고,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나'에게 되갚고 싶어 한다.

13 이 소설에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 운영된 지주제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마름'과 '배재'라는 용어의 사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14 5에서 '나'가 점순이의 성격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을 통해 점순이는 평소 부끄럼이 없고 붙임성이 좋으며, 기가 세고 당찬 성격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15 점순이가 수탉이 아닌 씨암탉을 때린 이유로 값이 덜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작품에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③ 점순이는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가 잘 보이는 곳에서 씨암탉을 때리고 있다.
- ② 점순이는 '나'가 감자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서, '나'를 괴롭히기 위해 '나'의 집 씨암탉을 때리고 있다.
- ④ '나'는 점순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타리만 내리치고 있다. 이는 마름 집안의 딸인 점순이의 신분적 지위로 인해 '나'가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점순이는 이를 알고 '나'를 괴롭히는 데에 사회적 지위를 은연중 이용하고 있다.

16 '나'는 점순이의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치거나 말로 호통치는 것으로 울분을 삭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④ '나'는 화만 내고 있을 뿐, 부모님이나 점순이의 부모님에게 문제 상황을 공유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조차 모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 ⑤ '나'는 점순이의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지만, 울타리를 내려치거나 욕을 하는 등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점순이의 괴롭힘에 맞서고 있다.

17 [서술형] '나'가 점순이의 괴롭힘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점순이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점순네 부모님에게 밋보여 우리 가족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 '나'는 점순이를 미워하는 마음에 욕을 하고 있고, 점순이 역시 '나'가 괴롭히기도 하고 '나'의 약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나'에게 비속어를 퍼붓고 있다. 즉, 두 사람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③ 해당 부분에서는 두 인물이 비속어를 사용하며 다투는 모습을 우스꽝

스럽게 그려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작품 속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나 인물의 성격 등에 부합하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사실성, 현실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④ 이 소설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은 독자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듯이 전달하는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19 갈수록 점순이의 괴로움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하는 ‘점입가경’이 이에 어울리는 사자성어이다.

오답 해설

- ① 금상첨화(錦上添花):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난형난제(難兄難弟):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이 비슷하여 닮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③ 부창부수(夫唱婦隨):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또는 부부 사이의 그런 도리.
- ⑤ 형설지공(螢雪之功): 반딧불·눈과 함께하는 노력이라는 뜻으로, 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

20 ‘회를 치다’는 ‘대단히 신이 나다’, ‘좋아하다’는 뜻이다.

21 12, 13의 내용을 통해 ‘나’는 자신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였지만 점순이의 답에게 또 젖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답에게 고추장을 먹인 것은 ‘나’이며, 고추장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나’가 먼저 닭싸움을 붙였다.
- ④ 13에 드러난 ‘나’의 속마음을 통해 고추장을 먹인 효과 때문에 ‘나’의 닭이 점순네 수탉을 공격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13에서 ‘나’의 닭이 점순네 수탉을 공격하자 ‘나’는 신이 나서 불기짝을 두드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22 11에 점순이가 닭싸움을 거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점순이에게 약이 올라 이기고 싶어 안달이 난 ‘나’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다. 또한 13에 ‘나’의 닭이 공격에 성공하자 신이 나서 불기짝을 두드리는 ‘나’의 모습이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다.

오답 해설

- ㄱ.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싶어 애를 쓰는 것은 ‘나’가 아닌 점순이다.
- ㄴ. ‘나’가 닭싸움에서 이기고 싶어 방법을 마련하지만,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를 통해 ‘나’의 아둔하고 엉뚱한 모습이 부각된다.

23 고추장을 먹이면 씹닭이 힘이 뻗친다는 비과학적 이야기를 믿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모습, 어쩌다 우연히 공격에 성공한 것도 고추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은 ‘나’의 특성을 보여 주는 행동들이다.

24 ㉔에서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점순이다.

오답 해설

- ① ㉔에서 ‘나’는 고추장을 먹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 ② ㉔에서 ‘나’는 고추장 덕분에 ‘나’의 닭이 점순이의 수탉을 이길 것이라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져 아쉬움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㉔ 다음에 이어지는 ‘나’의 속마음 중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는 표현을 통

해 ‘나’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을 공격한 것에 ‘나’가 신이 났음을 알 수 있다.

- ④ ㉔의 앞에 ‘나는 낮이 풀려 기동같이 묵묵히 서 있게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 ‘나’의 닭이 다시 공격당하자 실망한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5 14~16은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위기와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4는 위기 부분으로 ‘나’와 점순이의 갈등과 대립이 닭싸움을 통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며, 15, 16은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의 닭을 죽을 지경을 만들어 놓고 모르는 척 호드기를 부는 점순이에게 ‘나’의 분노가 극에 달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또한 14~16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다가 회상을 마치고 시간의 흐름이 현재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둘의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은 소설의 구성 단계 상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14~16 이후에 나타난다.
- ③ 과거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은 14~16 이전이다.
- ⑤ 이는 소설이 시작되는 ‘발단’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26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한 데 있다. ‘닭싸움’은 갈등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현재 시점에 해당하는, 나무를 하러 가는 길에 목격한 닭싸움이 발단 부분에서 나타나며, 닭싸움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므로 닭싸움은 이 소설의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전체 소설의 내용을 통해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작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담은 감자를 ‘나’가 거절하면서부터로, ‘나’에게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앙갚음하기 위해 닭싸움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힘이 세고 사납게 공격하는 점순네 수탉은 적극적으로 영역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점순이의 모습을, 덩치가 작고 싸움에 매번 지기만 하는 ‘나’의 수탉은 소극적이고 아둔하며 사회적 지위가 낮은 ‘나’의 모습을 반영한다. 두 인물의 처지와 성격이 닭싸움의 양상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 ⑤ 점순이는 ‘나’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닭싸움을 시킨 것도 있지만, ‘나’를 좋아하는 마음에 괴로움을 통해 ‘나’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도 있다.

27 15에서는 ‘나’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 전 자신이 없는 사이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여 놓을까 봐 걱정하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6에서는 자신이 염려했던 것에 더해 점순이가 호드기를 불며 약을 올리는 모습에 ‘나’는 더욱 화가 나게 된다.

28 ‘동백꽃’은 작가가 소설의 주제와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활용한 것이다. 점순이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동백꽃을 이용한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29 ‘나’는 죽을 지경에 놓인 자신의 ‘닭’을 보고는 화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핫김에 점순네 닭을 때려죽였지만, 이후에는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닭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점순이의 용서로 극적으로 해결되면서 ‘나’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30 [서술형] 17살 소년이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이 해학적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에게 미칠 화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31 점순이가 동백꽃 밑으로 기어가는 것은 어머니에게 ‘나’와 있었던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 ①, ③ 이 소설의 절정과 결말 부분의 ‘동백꽃’은 이제까지 펼쳐진 두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소녀와 소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⑤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가 느끼는 첫사랑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이 처음 느껴보는 사랑의 느낌은, 이 소설의 계절적 배경이자 시적을 상징하는 ‘봄’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노란색을 통해 표현되었다. 소녀와 소년의 이제 막 시작되는 풋풋한 사랑의 느낌은 동백꽃의 알싸한 후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되었다.

32 ‘나’와 점순이의 서툰 감정 표현과 그로 인한 갈등을 통해 시골에 사는 사춘기 남녀의 순박한 사랑이 소설 속에 그려졌다.

이해+탐구 | 응용 문제

☞ 본문 52~56쪽

- 1 ③ 2 ㉠-㉡-㉢-㉣-㉤-㉦ 3 ⑤ 4 ③ 5 ⑤
6 ③ 7 ② 8 ④ 9 ③

1 ‘나’에 대한 점순이의 복수로 시작된 답싸움은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점순이의 괴롭힘은 감자를 거절당하고 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으므로 3일 전부터 시작되었다.
- ② ‘나’는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 닭싸움을 이기고자 하였지만 점순네 수탉을 결국 이기지 못하였다.
- ④ 점순네 수탉의 죽음은 ‘나’와 점순이가 화해하는 계기가 된다.
- ⑤ ‘나’는 결말까지 점순이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화해한다.

2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발단에서는 닭싸움을 통해 현재 갈등이 고조된 상태의 ‘나’와 점순이의 상황을 보여 주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이후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과거 회상을 통해 제시한다.

3 ‘나’는 평소에는 점순네와의 관계로 인해 늘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으며, 두 집안의 사회적, 신분적 차이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점순이가 가정 형편 차이로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이 소설은 현재에서 과거,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시간의 흐름이 바뀌고, 이러한 시간의 전환은 닭싸움을 매개로 이어지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감자는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해당한다.
- ② 고추장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엉뚱하게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 주어 ‘나’의 순박하고 아둔한 성격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점순네 수탉의 죽음은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보여 줌과 동시에 의외의 전개를 통해 두 사람의 갈등이 해결되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 ⑤ 두 인물 사이의 가정 형편의 차이가 소설 속에서 드러나지만 이것이 두 인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5 이 소설의 서술자는 소설의 주인공인 ‘나’이다. 따라서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의 속마음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인물의 정확한 속마음은 서술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이는 3인칭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하는 이 소설과 관련이 없다.
- ② 이는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하는 이 소설과 관련이 없다.
- ③ 서술자가 ‘나’이면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가 서술된다. 서술자가 ‘나’인데 3인칭 시점이자 전지적 시점인 것은 성립될 수 없다.
- ④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하는 이 소설과 관련이 없다.

6 ‘나’는 순박하고 눈치가 없는 성격의 소유자로, 결말에 이를 때까지 자신에 대한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다. 따라서 점순이의 마음을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능청스러움을 가졌다는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7 소설이 점순이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것으로 바뀌더라도, 점순이가 주인공이자 서술자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기 때문에 현재와 시점의 종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8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과 같이 서술자인 점순이의 속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지만, ㉡과 같이 다른 인물인 ‘나’의 심리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오답 해설

- ① 점순이가 소설 속 서술자가 되어 자신을 ‘나’로 지칭하며 이야기를 서술하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사건과 주변 인물에 대해 서술하게 된다.
- ③ 점순이가 소설 속 서술자가 되면, 자신의 속마음 이외 다른 인물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다른 등장인물인 ‘나’의 속마음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할 수 없다.

9 이 소설에서는 순박하고 어리숙한 ‘나’가 등장하고 그런 ‘나’의 속마음도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나’를 답답하게 여기면서도 그의 어리바리한 모습에 웃게 된다.

1 ② 2 ④ 3 ③ 4 ③

- 1 지수는 우정에 대한 연재의 마음의 크기가 자신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여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 2 연재는 원래 성격대로라면 지수가 토라진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겠지만, 콜리의 말에 영향을 받아 지수에게 먼저 화가 난 이유를 묻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답 해설

- ①, ② "내가 너를 친하게 생각하듯이 너도 나를 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라는 지수의 대사를 통해, 지수는 연재를 친한 친구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수는 연재에게 기대하는 만큼, 연재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고 화가 났음을 알 수 있다.
- ③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아나요?"라는 콜리의 말에 영향을 받아 연재는 이제까지 하던 것과 달리 지수에게 화가 난 이유를 물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되었다.
- ⑤ '아쉬움에 면역되지 않은 마음이 설움에 정복당하는 듯했다.'와 '인간에게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다.'라는 연재의 속마음을 통해, 연재는 앞으로 자신의 마음을 친구인 지수에게 표현하기로 마음먹었음을 알 수 있다.
- 3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소설 밖 서술자가 소설의 모든 사건과 인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점이므로 등장인물인 연재와 지수의 심리를 모두 서술하여 두 인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양상과 이유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오답 해설

- ①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로서 소설 속 모든 인물과 사건을 꿰뚫어 보고 독자에게 서술하므로, 연재의 관점에서만 사건이 서술되지 않는다.
- ②,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효과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⑤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사용한 이 소설에서는 연재와 지수의 속마음은 물론, 현재 벌어진 사건과 관련된 과거의 일까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 4 소설의 서술자는 소설에서 작가를 대신하여 소설의 내용을 전달하는 존재이므로, 소설의 안에 위치하는가, 밖에 위치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존재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1 ㉠ 시각 ㉡ 시점 2 ①

- 1 '시각'과 '시점'은 유사한 뜻을 지닌 단어처럼 보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르므로, 뜻을 명확히 알고 문맥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2 '얼리다', '어우러지다', '융화하다'는 모두 여럿이 모여 갈등이 없이 조화롭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화합하다'는 '화목하게 어울리다.'라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 ② 발화하다: 재능, 능력 따위를 떨치어 나타내다.
- ③ 반목하다: 서로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다.
- ④ 사귀다: 서로 얼굴을 익히고 친하게 지내다.
- ⑤ 엉키다: 일이 서로 뒤섞이고 얽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다.

소단원 핵심 문제

- 01 ②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07 점순네는 마름이고 우리 집은 점순네에게 배재를 얻어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기 때문에 점순네 닭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 08 ③ 09 ② 10 ② 11 ④ 12 닭쌈 13 ④ 14 ② 15 ⑤ 16 점순이는 자신의 마음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달라는 의미로 말하였지만, 나는 점순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17 ③ 18 ③ 19 ④ 20 연재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사람들에게 이해받는 것을 포기했지만, 자꾸 다가오는 지수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 01 소설은 작가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허구로 지어낸 산문 형식의 문학 작품을 뜻한다. ①은 시, ③은 수필, ④는 설명하는 글, ⑤는 주장하는 글에 해당한다.

- 02 닭싸움은 소설이 쓰인 1930년대 농촌에서는 흔한 풍경이었으며 이 글에서 동물 학대를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바)의 "그러면서도 열일곱살이나 된 것들이~"를 통해 '나'와 점순이가 열일곱 살임을 알 수 있다.
- ② (바)의 '마름', '배재'의 어휘를 통해 소설의 배경이 1930년대 농촌 마을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이 소설은 '나'가 자신의 겪은 일을 구어체로 독자에게 말하듯이 서술하고 있다.
- ④ (가), (나)에서 벌어진 갈등의 이유가 (다)~(바)에 드러나 있다.

- 03 (바)에서 점순네는 마름이고 우리 집은 점순네에게 배재를 얻어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오답 해설

- ① 점순이는 '나'의 관심을 끌고 '나'에게 호감의 표시로 감자를 주고 싶어 말을 걸었다.
- ② '나'는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하였다.
- ③ '나'의 가족은 삼 년 전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
- ⑤ 점순이는 씨앗닭을 때려 '나'를 괴롭히고 있다.

04 ‘나’는 점순이가 괴롭히는 이유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눈치가 없고 순박한 인물이며, 점순이는 ‘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ㄴ. ‘나’는 점순이의 말에 기분이 상해 감자를 무뎌둑둑하고 무례한 태도로 거절했다.
- ㄷ. 점순이가 감자를 거절당한 후 얼굴이 빨개진 것은 창피하고 당황스러우며 화가 났기 때문이다.

05 ‘나’는 애정을 표현하고자 한 점순이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06 [서술형] 이 글의 서술자는 주인공인 ‘나’이다. 따라서 ‘나’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문장을 찾아야 한다.

07 [서술형] 점순네의 소작농인 우리 가족의 사정으로 인해, ‘나’는 점순이와 겪는 갈등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08 ‘나’가 자신의 수탉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싸움을 붙였으나, 이는 점순이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한 행동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나’의 수탉이 나오지 않으면 모이로 유인하여 닭싸움을 붙이는 점순의 영악함을 엿볼 수 있다.
- ② (나)에서 ‘나’가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는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임을 알았다면, 닭싸움에서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④ (라)의 ‘웁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라는 ‘나’의 속마음을 통해 고추장 때문에 ‘나’의 닭이 힘이 세졌다고 믿는 ‘나’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마)의 ‘이걸 보고서 이번에는 점순이가 깔깔거리고~’를 통해 점순이가 실망한 ‘나’를 약 올리기 위해 일부러 더 크게 웃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 주인공이 순박하고 아둔한 탓에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개되는 이 이야기에는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우습게 그려진다.

오답 해설

- ① 모든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서술할 수 있는 3인칭 전지적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③ 이 소설에서 점순이의 행동은 ‘나’의 시점에서 판단한 대로 서술되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서술된다.
- ④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맞지만, 점순이를 좋아하는 ‘나’의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나’의 시선을 중심으로 사건이 서술되므로, 독자는 ‘나’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유추하며 소설을 읽어야 한다.

10 ‘나’는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고 효과를 기대했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속설이기 때문에 닭싸움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실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지만 우연히 ‘나’의 닭이 공격에 성공하게 되고, ‘나’는 고추장이 효과가 있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리 변화가 드러난 ②가 답으로 적절하다.

개념 플러스

오비이락의 오류

- 오비이락(鳥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
- 오비이락의 오류란 아무 관계도 없는 두 사건이 우연히 같은 시간(또는 시간적 선후 관계)에 발생했을 때,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11 ‘쟁그럽다’는 ‘하는 행동이 괴상하여 얄밉다.’라는 뜻이지만, 이 소설에서는 문맥상 ‘몹시 고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2 ‘닭싸움’은 두 사람의 갈등과 해소의 과정을 드러내며 현재와 과거를 이어 주는 사건이다. 동시에 호의를 거절당한 점순이의 원망과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마음이 닭싸움이라는 양 끝으로 드러나고 있다.

13 (가)~(다)는 소설의 절정과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 ① 소설의 발단에 해당한다.
- ② 소설의 전개에 해당한다.
- ③ 소설의 위기에 해당한다.
- ⑤ (가)~(다)는 절정과 결말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은 전개나 위기 부분에 나타난다.

14 점순이는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나’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호드기를 붙고 있다. 따라서 ‘나’에게 들리지 않기 위해 점순이가 바위틈에 숨어 닭싸움을 붙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한때는 격실격실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라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 ‘나’가 평소에도 점순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나무를 하러 올라가기 전에도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여 놓았었기 때문에, ‘나’는 닭의 헛소리만 듣고도 범인이 점순이라고 짐작한다.
- ④ 이 소설의 ‘동백꽃’은 봄에 개화하는 생강나무꽃에 해당하는 강원도 방언이다. 따라서 ‘동백꽃’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불임을 알 수 있다.
- ⑤ ‘그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라는 나의 속마음을 통해 점순이의 태도로 인해 ‘나’가 더욱 화가 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㉔은 서술자인 ‘나’가 직접적으로 점순이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㉑~㉓은 인물들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물들의 특징과 성격을 독자가 유추해야 한다.

16 [서술형] 독자들은 ㉔를 통해 점순이가 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나’의 속마음을 보면, ‘나’는 아직도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소설의 배경인 동백꽃은 시각적, 후각적으로 낭만적인 분위기

기를 형성하여 사춘기 소녀와 소년의 풋풋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18** 연재는 어느샌가 자신의 옆에 지수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만큼 지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내가 너를 친하게 생각하듯이 너도 나를 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라고 한 지수의 말을 통해 지수는 연재를 친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② 연재는 과거의 관계에서 친구들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상처로 인해 이해를 포기하고 관계에 기대를 걸지 않았다.
- ④ 지수는 연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연재는 그런 지수를 친구로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 ⑤ 지수는 연재를 이해하고 쌀쌀맞은 태도가 진심이 아님을 알고 다가갔다.

- 19** 이 소설은 ‘나’가 등장하지 않으며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연재’, ‘지수’와 같이 3인칭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두 인물의 속마음과 사건의 전말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오답 해설

- ①,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③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⑤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20 [서술형]** 연재는 과거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쌓여 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연재는 타인을 이해하거나 타인에게 이해받기를 포기하고, 친구들에게 일부러 쌀쌀맞게 대한다. 하지만 이런 연재의 마음을 적극적이고 불임성 있는 지수가 다가와 흔든 것이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본문 78~83쪽

- 01** ② **02** ④ **03** ② **04** ④ **05** ⑤ **06** 아직 어리지만, 남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겠다. **07** (가)는 ‘~ㄹ 수 없고’와 ‘~ㄹ 수 있어’를, (나)는 ‘~ 수 있을까.’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08** ⑤ **09** ③ **10** ④ **11** 점순이는 감자를 통해 ‘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나’는 점순이가 감자로 생색을 내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였다. **12** ④ **13** ④ **14** ③ **15** ⑤ **16** ⑤ **17** 대회를 끝으로 예전처럼 놀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연재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지수에게 표현하지 않았고, 지수는 그런 연재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 01** (가)의 화자는 ‘용돈 삼천 원’을 받는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학교’, ‘교실’ 등과 같은 시어를 통해 화자가 학생임을 유추할 수 있다.
- ③ 3연에서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나’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ㄹ 수 있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다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파도를 헤쳐 나가는 용감한 은빛 물고기에 자신을 비유하여 나의 길을 갈 것임을 말하고 있다.

- 02** 이 시는 곤충을 의인화하여 시적 화자로 내세웠는데, 이는 귀뚜라미가 가을을 기다리는 모습에 빗대어 자신의 소망이 이뤄지는 때를 간절히 기다림을 표현한 것이지 고통을 견디는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함은 아니다.

- 03** (가)의 화자는 작지만 온몸으로 파도를 헤쳐 나가는 은빛 물고기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씩씩하고 당차게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화자는 ‘나’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다.
- ③ (나)의 화자는 귀뚜라미이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현재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괴롭기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연재가 자신의 소망이 이뤄지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 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의 ‘나’로 드러나 있다.

- 04** (가)의 화자는 비록 자신은 어리지만,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④와 같이 남을 도울 수 있는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갖추라는 응원은 적절하지 않다.

- 05** ㉔은 가을이 된 후 귀뚜라미의 소리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싶다는 소망이 실현된 소리이다. ㉕~㉗은 여름의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귀뚜라미의 소리이다.

- 06 [서술형]** [A]는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직유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화자는 씩씩하고 당찬 어조로 파도를 헤쳐 나가는 용감한 은빛 물고기처럼 남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07 [서술형]** (가)와 (나) 모두 반복을 통해 운율이 형성되는데, (가)는 2연에서, (나)는 2연과 3연의 마지막 행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 08**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나’가 소설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이다(ㄱ).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신의 속마음만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으며 다른 등장인물의 속마음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서술하게 된다(ㄴ). 또한 이 소설의 서술자는 점순이의 말과 행동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독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나’를 순박하고 어리숙한 인물로 인식하게 되고 ‘나’의 엉뚱한 행동에 웃음을 터뜨리게 된다(ㄷ).

- 09 (다)에 '나'와 점순네 집안의 관계가 드러나 있지만, 이로 인해 '나'가 점순이에게 호감을 가질 수 없다거나, 애정을 받아 줄 수 없어 슬프다거나 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⑤ 소설 속 닭싸움은 두 인물의 성격과 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 둘의 갈등과 화해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②, ④ (나)에는 나를 전 벌어진 감자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나'가 점순이가 준 감자를 거절한 사건은 점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계기가 되며, 이는 (가)에 나타난 닭싸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 10 ㉓의 '이년아'는 비속어에 해당한다. 비속어는 일상 속 규범에 서의 일탈을 통해,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쾌감을 준다. 또한 약을 올리거나 조롱하는 상황에서는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동백꽃」의 작가는 후자의 효과를 노리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소설의 해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 11 [서술형] '굵은 감자 세 알'은 이 소설의 갈등이 시작되는 원인이다. 점순이는 감자를 통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눈치가 없는 '나'는 이를 '나'에 대한 점순이의 무시로 오해한다.

- 12 (나)에서는 '나'의 닭이 우연히 한 번 공격에 성공할 뿐, 결국 닭싸움에서 이긴 것은 점순이의 수완이다. '나'가 신이 났다가 실망하는 모습에 점순이가 일부러 더 크게 웃는 모습이 (나)의 마지막에 드러나 있다.

- 13 (가)의 화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따라서 (가)의 화자가 (나)의 화자에게 할 조언의 내용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보라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화자는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므로, 부당한 상황에 대해 참고 견디라는 것은 (가)의 화자가 지향하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② '닭'을 배려하기 위해 점순이와 직접 싸움을 하라는 것은 (가)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거리가 멀다.
 ③ (나)의 '나'와 점순네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나'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모른다.
- 14 (가)와 (나) 모두 작품 안에서 '나'라고 나타나고 있으므로 작품에 말하는 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ㄷ).

오답 해설

- ㄱ. (가)와 (나)의 말하는 이의 성별은 지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ㄴ. (가)의 화자는 이타적인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씩씩한 청소년이며, (나)의 서술자는 순박하지만, 자신을 좋아하는 점순이의 마음은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숙한 인물이다.

- 15 (가)는 서술자가 '나'로 드러나며, '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따라서 (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나)는 서술자가

드러나지 않으며, 등장인물을 '연재', '지수'와 같이 3인칭으로 부르고 그들의 속마음을 모두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3인칭 전지적 시점에 해당한다.

- 16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성격과 심리, 그리고 인물들이 겪는 갈등의 원인과 그 해소 과정 등이 서술자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 17 [서술형] 연재와 지수는 서로에게 거는 기대와 표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로봇 대회가 끝나면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을 계기로 표면화된다. 이에 연재는 '아쉬움'을, 지수는 그런 연재가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서술·논술형 문제

본문 84~85쪽

- 01 (가)의 화자는 '나'이며 '학교', '교실', '아직 어리지만'을 통해 학생임을 알 수 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은 어른들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인 화자를 통해 강조할 수 있으며, 또래 독자들에게 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 02 ㉠ 고통스러운(또는 괴로운, 슬픈, 힘든) ㉡ 귀뚜라미가 잔절히 기다리는 계절

- 03 ㉠ 파도를 헤쳐 나가는 용감한 은빛 물고기처럼 온몸으로 물보라를 일으키며 나의 길을 갈 수 있어 ㉡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

- 04 이 글의 서술자는 소설의 주인공인 '나'이다. 따라서 '나'가 겪은 일과 심리를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다른 인물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 특히 '나'가 순박하고 아둔하여 점순이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독자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

- 05 ㉠ 점순이가 감자로 생색을 내면서 나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무시하고 있다. ㉡ 점순네 닭을 죽였기 때문에 점순네가 우리 집에 빌려준 땅과 집을 빼앗길지도 모른다.

- 06 점순이가 일부러 닭싸움을 붙이며 '나'를 괴롭히는 듯하지만, 사실은 '나'를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라는 말은 '나'를 용서하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은 점순이의 마음을 나타낸다.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될 거라고 예상된다.

평가 요소 시의 화자와 설정 효과 이해하기

- 01 (가)의 화자는 시에 '나'로 드러나 있다. 독자는 '나'가 학생임을 시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시의 주제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어 성인 화자가 전달한다면 청소년 화자에게 자칫 고루한 훈계처럼 들릴 수 있다. 이에 시인은 독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화자를 청소년으로 설정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정확한 시어를 근거로 들어 화자의 정체를 서술하고, 학생(청소년) 화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10점
두 가지 중 하나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대조적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 02 (나)는 매미와의 대조를 통해 귀뚜라미가 현재 처한 상황과 귀뚜라미의 소망을 강조하였다. 둘의 대비는 사는 곳(높은 가지-지하도), 계절(여름-계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과 ㉡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비유적 표현과 시의 주제 이해하기

- 03 (가)와 (나)의 화자는 처한 상황, 어조 등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바램은 (가)에서는 4연의 직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나)에서는 3연의 마지막 행의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로 비유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 ㉡, ㉢ 세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 ㉡, ㉢ 중 두 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8점
㉠, ㉡, ㉢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소설의 서술자와 설정 효과 알아보기

- 04 이 글의 서술자는 주인공과 일치하므로, 소설의 내용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서술된다. 그런데 이 소설의 서술자는 순박하고 아둔한 특성으로 인해 소설 속 상황과 다른 인물의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서술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고, 독자는 어리석은 서술자 덕분에 웃게 된다.

채점 기준	배점
1) 서술자가 '나'이며 '주인공'임을 밝히고, 2)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인한 효과, 3) 순박하고 아둔한 서술자로 인한 효과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10점
1), 2), 3) 중 두 개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8점
서술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두 가지 중 하나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주인공의 심리와 생각 추론하기

- 05 '나'의 집은 형편이 어려워 마름인 점순네에게 땅과 집을 신세를 지고 있다. 그래서 점순이의 의도와 달리 '나'는 자신의 잘못된 해석으로 점순이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을 모두 맞게 서술한 경우	10점
㉠과 ㉡ 중 한 가지만 맞게 제시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소설 속 대사를 통한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 06 소설 속 인물의 대사 속에는 인물의 감정이나 심리가 반영되어 있고,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변화하거나 앞으로의 내용이 전개된다. 점순이는 겉으로는 화를 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나'에 대한 호의와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대사를 통해 드러낸다.

채점 기준	배점
대사에 담긴 점순이의 마음을 파악하고 인물 간의 관계 변화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대사에 담긴 점순이의 마음을 파악하여 썼으나, 갈등이 해소되는 관계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2 설득력 있는 논증, 이해하기 쉬운 설명

(1)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본문 94~95쪽

개념 확인

- 1 논증 2 ③ 3 ③ 4 × 5 ○ 6 ○ 7 곤
충은 알을 낳는다. 8 ③

확인 문제

본문 98~103쪽

- 1 ① 2 ① 3 ② 4 옛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 것이 미래 건축의 바람직한 방향일까? / 폐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미래 건축에 도움이 될까? 5 ③ 6 ③ 7 ④ 8 ⑤ 9 ②
10 ① 11 글쓴이는 ①에 반대한다. 재생된 건축물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연출하여 도시의 미관을 돋보이게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2 ③

- 1 글쓴이는 2에서 '오래된 건물을 무조건 허물어 버리는 것이 좋을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재생 건축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글쓴이는 3에서 재생 건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 건축에 쓰였던 자재 일부를 그대로 활용하므로 자원을 아낄 수 있고, 건축물이 지니는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재생 건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3 2에서 재생 건축의 개념을 '오래된 건축물이나 손상된 건축물에서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내부의 모습이나 용도를 현대 생활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4 [서술형] 1에서는 글쓴이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글쓴이는 미래의 건축은 어떤 것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옛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현대식 건물을 짓는 것이 미래 건축의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5 4~6에는 재생 건축의 성공적인 사례를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제시하여 재생 건축이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근거'라고 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이론적인 배경이나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④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예상되는 반론이나 반론에 대한 반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글쓴이의 주장을 입증해 주는 실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주장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개념 플러스

근거로 사용되는 자료의 유형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나 객관적인 통계 자료는 물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 과학적 실험이나 조사 결과, 객관적인 관찰 내용 등도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의견을 근거로 사용하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 밖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도 근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6 재생 건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들의 공통점으로부터 옛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현상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인 귀납이 쓰였다.
- 7 ①과 ④은 모두 버려진 산업용 건물로 재생 건축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①은 극심한 공해 문제를, ④은 환경 문제를 일으켜 가동을 멈췄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 해설

- 나. ⑤은 도심 안에 남은 채로 20년 동안 버려진 채 방치되었다고 했으므로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 8 북촌 한옥 마을은 한옥의 아름다운 겉모습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 내부를 현대식으로 개조하는 건축 방법을 도입하여 재생된 예이다. 따라서 외부와 내부를 모두 개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9 9에서 글쓴이는 '의미 있는 건축물은 보존하고 재생하여 다음 세대에 이어 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 건축이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 10 7에서는 재생 건축을 비판하는 입장을 소개하며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1 [서술형] ①은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 해당한다. 이 반론에 대해 글쓴이는 8에서 재생된 건축물이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돋보이게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생된 건축물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 12 ④은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재생 건축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재생 건축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③의 내용으로 ④을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재생 건축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였으므로 재생 건축의 부정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 ② 재생 건축을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글쓴이의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인 반론에 해당한다.
- ④ ㉠에 대해 글쓴이는 ㉢에서 재생 건축을 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줄어 건축 비용이 절감된다고 반박하였다.
- ⑤ ㉠에 대해 글쓴이는 ㉢에서 재생된 건축물이 관광 자원이 되어 도시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104~107쪽

1 ② 2 기존 자재를 활용하여 자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② 4 ② 5 ④ 6 ⑤ 7 ④

1 ㉡~㉢은 재생 건축의 한계가 아니라 재생 건축의 개념과 이점을 다루고 있다.

2 [서술형] 논증 요소 중 '이유'는 글쓴이가 주장을 내세우게 된 까닭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논리적인 설명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에서 재생 건축의 이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제시된 근거는 버려진 건물을 재생하여 가치 있는 건축물로 만든 사례이므로, 폐건물을 재생하여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④, ⑤ 제시된 근거는 폐건물인 화력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재생한 사례이다. 따라서 폐건물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거나 원래의 기능을 되살리거나 산업용 시설로 재정비한 것이 아니다.
 - ③ 제시된 근거는 폐건물인 화력 발전소를 허문 사례가 아니라, 폐건물의 기본 골조를 유지한 채 내부를 개조한 것이다. 따라서 폐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사례로 볼 수 없다.
- 4 귀납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이다.

5 글쓴이는 재생 건축의 가치를 바탕으로 재생 건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 건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재생 건축이 도시 전체의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은 재생 건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해당하므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ㄱ은 재생 건축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해당하고, ㄴ은 재생 건축이 지닌 가치에 해당하므로 ㄱ과 ㄴ은 재생 건축이 필요하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6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예상하여 제시한 후 이를 다시 반박하면 주장을 강조하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근거에 해당한다.

7 밑줄 친 부분은 논증 요소 중 '이유'에 해당한다.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 중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한다.

오답 해설

①은 반론, ②는 주장, ③은 근거, ⑤는 반박 또는 재반론에 해당한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108~111쪽

1 ④ 2 우리의 뇌는 지속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에 노출되면 중독 현상에 빠진다는 일반적 원리로부터 짧은 영상이 일으키는 중독 현상이라는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에 연역의 논증 방법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3 ㉠ 근거 ㉠ 타당성 / 신뢰성 / 설득력 4 ⑤

1 이 글의 주장은 짧은 영상은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글쓴이가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는 짧은 영상이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② 짧은 영상의 장점을 말하는 것으로, 글쓴이의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인 반론에 해당한다.
- ③ 짧은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소개한 것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짧은 영상의 개념과 관련된 설명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서술형] ㉡에서는 중독 현상의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짧은 영상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 원리나 진리를 전제로 하여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을 연역이라고 한다.

3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근거에 해당한다. 근거는 이유를 신뢰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면 주장의 타당성, 신뢰성,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4 논증 방법의 종류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논증이 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논증 과정에 오류가 없고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논리적이야 논증이 타당해진다.

오답 해설

- ① 주장,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등 논증 요소 간의 관계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논증이 타당해진다.
- ② 연역이나 귀납과 같은 논증 방법이 타당해야 논증이 타당해진다.
- ③ 이유나 근거와 같은 논증 요소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해야 논증이 타당해진다.

④ 이유나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 내는 논증 과정이 논리적이어서 논증이 타당해진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113쪽

1 ② 2 ④

- 1 문장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뜻하는 ‘견해’가 들어가야 하고, ㉡에는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을 뜻하는 ‘전제’가 들어가야 한다.
- 2 ‘이점’은 이로운 점을 뜻한다. ‘어떤 대상을 볼 때에 시력의 중심이 가 닿는 점’을 뜻하는 단어는 ‘시점’이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16~119쪽

- 01 ① 02 ⑤ 03 ① 04 폐기물 처리 비용이 줄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건축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재생된
건축물이 관광 자원이 되어 도시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05 ③ 06 ⑤ 07 ⑤ 08 ② 09 ② 10 옛 건
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11 ④ 12 ④ 13 짧은 영상은 청소년에게 나쁘다. /
짧은 영상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 01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쓰인 논증 요소의 적절성, 논증 방법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면서 글쓴이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 02 (마)에서 독일의 줄페라인 탄광은 시설 개조를 통해 유럽 최고의 복합 문화 단지로 거듭난 재생 건축의 사례로 소개되어 있다.
- 03 (가)는 글의 짜임상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가)에서 글쓴이는 폐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 제기를 하고 있을 뿐, 주장을 직접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② (다)에서 재생 건축을 통해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과 건축물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글쓴이가 주장을 내세우게 된 이유에 해당한다.
- ③ (라)와 (마)에 제시된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줄페라인 복합 문화 단지는 재생 건축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한다.
- ④ (바)에서 재생 건축이 현대적인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의견은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반론에 해당한다.

⑤ (사)에서 글쓴이는 재생 건축은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돋보이게 만들고 건축 자원을 재활용하여 건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04 [서술형] ㉠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은 (사)에 제시되어 있다. 재생 건축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반론에 대해 글쓴이는 재생 건축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줄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어서 건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재생된 건축물이 관광 자원이 되어 해당 도시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05 ㉡에는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 건축이 가치가 있다는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 있다. 따라서 재생 건축을 통해 자동화 방식을 갖춘 현대식 건물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글쓴이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 ① (라), (마)에서 재생 건축의 성공적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재생 건축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②, ⑤ (다)에서 재생 건축을 하면 자원을 아낄 수 있고 건축물의 의미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재생 건축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④ (바)에서 재생 건축이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반론에 대해 (사)에서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통해 도시의 미관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반박을 하여 재생 건축의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06 ‘오래된 미래’는 단순히 과거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문화유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오래된 미래’는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 ② 글쓴이는 재생 건축이 지닌 가치를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통해 드러내면서 재생 건축이 지속 가능한 건축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오래된 미래’는 미래 건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③, ④ ‘오래된 미래’에서 ‘오래된’은 과거를 의미하므로 ‘미래’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다. 이렇게 모순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여 진리를 드러내는 표현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한다. 글쓴이는 이와 같은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07 ‘문명’은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을 뜻한다.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발전’이다.

08 (가)와 (나)에서 글쓴이는 재생 건축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재생 건축이 지닌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다)에서 재생 건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라)에서 이를 반박함으로써 재생 건축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화제는 재생 건축이 지닌 가치라고 할 수 있다.

09 (가)와 (나)에서는 재생 건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다)에서는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후 (라)에서 이를 반박하고 있다.

10 [서술형] 이 글에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어 있다. (가)와 (나)에서 영국, 독일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한 후, (다)에서 이 사례들로부터 옛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11 (나)에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지닌 것은 짧은 영상이 아니라 길이가 긴 영상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에서 쇼트 폼은 주로 휴대 전화로 이용하는 15~60초 정도의 짧은 영상이라고 하였다.
- ② (마)에서 짧은 영상은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또는 학교 쉬는 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에 이용하기 안성맞춤이라고 하였다.
- ③ (마)에서 짧은 영상은 요점만 보고 싶은 젊은 세대를 위해 내용을 압축하여 빠르게 전달한다고 하였다.
- ⑤ (나)에서 짧은 영상은 가장 자극적인 장면만 가져와 짧게 편집한 것이라고 하였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높은 빈도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12 ㉠~㉢는 연역 논증에 해당하는 삼단 논법의 논증 방법을 보여 주고 있는 예이다. ㉠은 대전제, ㉡는 소전제이고, ㉢는 대전제와 소전제로부터 이끌어 낸 결론에 해당한다. 중독 현상에 대한 일반적 원리를 전제로 짧은 영상의 반복 시청이 중독 현상을 유발한다는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③ ㉠은 대전제, ㉡는 소전제로 ㉠, ㉡는 모두 전제에 해당한다. ㉢는 그 전제들로부터 이끌어 낸 결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 이루어진 삼단 논법은 연역 논증의 대표적인 예이다.
- ②, ⑤ 연역 논증에서는 전제가 참이어야만 결론이 참이 된다. 따라서 대전제나 소전제 중 하나라도 거짓이면 결론은 거짓이 된다.

13 [서술형] 글쓴이는 (가)에서 '청소년이 짧은 영상을 계속 보는 것은 왜 나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짧은 영상이 청소년에게 나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짧은 영상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2)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고 글 쓰기

본문 120~121쪽

개념 확인

- 1 설명 2 비교와 대조 3 정의 4 인과 5 구분
- 6 예시 7 ○ 8 × 9 ○ 10 ⑤ 11 ⑤

확인 문제

본문 124~127쪽

- 1 ⑤ 2 ④ 3 ④ 4 자외선을 오랫동안 쬌으면 피부 세포 속의 디엔에이가 손상을 입고, 심하면 피부암에 걸리기 때문이다. 5 ① 6 ④ 7 ④ 8 구분, 여러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1 설명문은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시광선의 붉은색 바깥에 있는 빛은 적외선이다.

오답 해설

- ① 2에서 태양 빛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 ②, ③ 3에서 자외선은 에너지가 많아 생물의 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데, 이런 살균 기능을 이용하여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개발되었다고 하였다.
- ⑤ 1에서 자외선은 우리 몸의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3 '태양 빛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에 분석의 방법이 쓰였고(ㄷ), '가시광선이란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이라는 뜻이다.'와 '적외선은 가시광선의 붉은색(적색) 바깥, 자외선은 가시광선의 보라색(자색) 바깥에 있는 빛이라는 뜻이다.'에 정의의 방법이 쓰였다(ㄴ).

4 [서술형] 3에서 자외선은 생물의 세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외선을 오래 쬌으면 피부 세포 속 디엔에이가 손상을 입어 심하면 피부암에 걸리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자외선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까닭에 해당한다.

5 4~8에는 자외선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②는 4에, ③은 6에, ④는 7에, ⑤는 5에 각각 해당되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6 6에서 자외선을 반사하는 차단제는 바르면 피부가 하얗게 들떠 보이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피부에 투명하게 발리는 것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로 바꾸는 차단제의 장점이다.

오답 해설

- ① 4에서 차단 대상이 되는 자외선은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고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에이와 자외선 비라고 하였다.
- ② 6에서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로 바꾸는 차단제는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③ 5에서 에스피에프는 자외선 비를, 피에이는 자외선 에이를 차단하는 표시라고 하였다.

⑤ 5에서 피에이의 경우 '+'가 많을수록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하였다.

7 ㉔에는 '에스피에프 50'을 예로 들어 에스피에프의 숫자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ㄴ에서 침엽수의 종류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고, ㄷ에서도 설날 세시 풍속에 해당하는 차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ㄱ은 대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 ㄷ은 두 대상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비교의 방법이 쓰였다.

8 [서술형] ㉠은 자외선의 종류를, ㉡은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128~130쪽

1 ⑤ 2 자외선 3 ③ 4 ② 5 ③ 6 ㉠ 정의
ㄴ 예시 ㄷ 비교와 대조

1 자외선 차단제의 '에스피에프'는 자외선 비를, '피에이'는 자외선 에이를 차단한다는 표시이므로 '에스피에프'와 '피에이'는 차단하는 자외선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에이와 자외선 비를 차단한다.
- ② 자외선을 오래 쬘면 사람에게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 ③ 사람의 피부에도 자외선을 막아 주는 기능이 있지만 표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④ 태양 빛에는 가시광선과 자외선 외에 적외선도 있다.

2 이 글의 설명 대상은 자외선으로 자외선의 특징과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 ㉠에는 태양 빛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이, ㉡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외선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4 자외선을 반사하는 차단제와 자외선을 열로 바꾸는 차단제의 장단점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①은 비교, ③은 인과, ④는 분석, ⑤는 분류·구분의 설명 방법에 해당한다.

5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인을 밝히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 초래된 결과를 설명하는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 원인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은 정의, ②는 예시, ④는 과정, ⑤는 대조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효

과이다.

6 대상의 뜻을 풀이하는 설명 방법은 '정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은 '예시', 다른 대상과 견주어 설명하는 방법은 '비교와 대조'에 해당한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131~139쪽

1 ① 2 ④ 3 ③ 4 ⑤ 5 ⑤ 6 ③ 7 ⑤
8 ② 9 양궁의 특징, 우리나라 양궁이 강한 까닭 10 ⑤
11 ④

1 글의 개요를 짜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하는 활동이다.

2 시우는 '이번 기회에 양궁의 특징과 한국 양궁의 강점을 조사'하기로 하고, 이것을 주제로 삼아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하고 있다.

3 '할머니의 사랑'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느끼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의 글감으로 적절하다.

4 다른 사람이 다루었나 다루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자신의 수준에 맞고 글쓰기의 목적에 적합하며 추상적이지 않은 것을 설명 대상으로 정하면 좋다. 또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설명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5 ㉔는 국가대표 선발이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양궁이 강한 까닭을 설명할 때 활용하기 적합한 자료이다.

오답 해설

- ① ㉔는 양궁의 뜻을 담고 있는 국어사전의 자료이므로 양궁의 뜻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 ② ㉣는 양궁의 활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공식적인 누리집 자료이므로 활의 구조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 ③ ㉤는 양궁의 종류에 리커브 방식과 컴파운드 방식이 있다는 중학교 체육 교과서의 자료이므로 양궁의 종류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 ④ ㉥는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강 자리를 유지하는 까닭을 설명한 신문 기사 자료이므로 한국 양궁이 강한 까닭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6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할 때 그 자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수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다고 하여 해당 자료가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인하고,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7 양궁의 종류인 리커브와 컴파운드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견주는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양궁의 뜻을 설명할 때는 정의의 방법이 적절하다.
 ② 활의 구조를 설명할 때는 분석의 방법이 적절하다.
 ③ 양궁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할 때는 분류·구분의 방법이 적절하다.
 ④ 우리나라 양궁이 강한 까닭을 설명할 때는 인과의 방법이 적절하다.
- 8 ③에서 양궁의 활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그림, 림, 스트링으로 나눈 후, 각 부분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분석의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 오답 해설
- ① ②에서 양궁(洋弓)은 서양식으로 만든 활을 뜻하며, 일정한 거리에서 활로 쏘아 설치된 과녁이나 표적을 맞힌 기록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라고 설명하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하여 양궁의 뜻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③ ④에서 양궁의 두 종류를 견주는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두 종류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④ ⑤에서 실전 훈련의 예를 보여 주는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양궁 실전 훈련 방식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⑤ 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공정한 국가대표 선발과정을 거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양궁이 경쟁력이 높은 까닭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 9 설명하는 글의 끝부분에서는 중간 부분의 설명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의 끝부분에서는 '이상으로 양궁의 특징과 우리나라 양궁이 강한 까닭을 알아보았다.'라는 문장을 통해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10 설명하는 글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설명 대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근거를 들어 입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1 설명 대상에 관한 자료를 다양한 매체에서 수집한 후에는 설명 내용과 관련된 자료만을 선정하여 글로 써야 한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141쪽

1 ④ 2 ㉠ 도달 ㉡ 살균 ㉢ 구실

- 1 '흡수하다'는 '빨아서 거두어들이다'를, '방출하다'는 '비축하여 놓은 것을 내놓다'를 뜻하는 말로, 두 단어는 의미상 서로 반대되는 반의 관계에 놓인 말이다.
- 오답 해설
- ①, ②, ③, ⑤의 단어들은 모두 비슷한 의미를 지닌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 2 영수는 자신이 다다를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하므로 '도달'이 들어가야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병원균을 죽이는 일이 필요하므로 '살균'이 들어가야 한다(㉡). 그는 만형으로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며 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고 있으므로 '구실'이 들어가야 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44~147쪽

-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⑤ 06 ②
 07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양산 또는 모자를 쓰거나 긴 옷을 입는다. 08 ㉢ 대조, ㉣ 차이점 09 ④ 10 ⑤
 11 ⑤ 12 ② 13 '중간' 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4 시각 자료를 통해 활의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01 이 글은 설명문이다. 설명하는 글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참신한 발상을 개성적으로 드러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참신한 발상과 개성적 표현은 주로 문학 작품에서 많이 드러난다.
- 02 (나)에서 태양 빛의 구성 요소로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이 있다고 하였으며(㉠), (사)에서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한 까닭은 사람의 표피만으로 자외선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에서는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자외선의 특성인 살균 원리를 이용한 제품이라고 하였고(㉡), (가)와 (다)에서 자외선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였다(㉣).
- 03 (사)에서 사람의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지만, 사람의 표피만으로 자외선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햇빛이 강한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은 (가)에서, ②는 (라)에서, ③, ④는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4 (다)에서 자외선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예로 드는 예시의 방법이 쓰였다. (마)에서도 '에스피에프'라는 표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에스피에프 50'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 그 의미를 알려 주는 예시의 방법이 쓰였다.
- 오답 해설
- ① (나)에는 태양 빛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 분석의 방법이 쓰였지만, (라)에는 분석의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② (나)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뜻을 풀이할 때 정의의 방법이 쓰였지만, (바)에는 정의의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④ (라)에는 자외선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하는 구분의 방법이 쓰였지만, (사)에는 분류와 구분의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⑤ (바)에는 자외선 차단제의 두 종류의 장단점을 견주는 비교와 대조의 방법이 쓰였지만, (사)에는 비교와 대조의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 05 '에스피에프(SPF) 35'가 적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아무 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자외선이 35분의 1만 흡수되고 나머지 자외선은 차단된다.
- 06 ㉠에서는 자외선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 결과 생물의 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하였고, ㉡에서는 자외선 시가 오존층에 흡수되기 때문에 자외선 시는 지구 표면에 도달하지 않는

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 ㉡은 어떤 원인에 의해 초래된 결과를 밝혀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인 것이다.

오답 해설

①은 대조, ③은 정의, ④는 과정, ⑤는 분류의 설명 방법에 해당한다.

개념 플러스

‘비교’와 ‘대조’의 차이

비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설명하는 방법 ㉡ 발효와 부패는 둘 다 미생물에 의하여 일어나는 분해의 과정이다.
대조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법 ㉡ 발효는 분해 결과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부패는 유해한 물질이만 들어진다는 차이가 있다.

‘분류’와 ‘구분’의 차이

분류	여러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 ㉡ 가아금과 거문고는 현악기, 피리와 단소는 관악기, 북과 장구는 타악기이다.
구분	하나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 악기는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뉜다.

07 [서술형]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은 (사)에 제시되어 있다. 햇빛이 강한 날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양산 또는 모자를 쓰거나 긴 옷을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다.

08 ㉡는 자외선 차단제의 두 종류가 각각 지닌 장단점을 대조하여 설명함으로써 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보여 주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09 ㄱ은 양궁의 뜻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나)에서 활용되었고, ㄴ은 양궁의 활의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다)에서 활용되었으며, ㄷ은 우리나라 양궁이 강한 까닭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마)에서 활용되었다.

오답 해설

ㄴ은 양궁의 종주국과 스포츠로서 양궁의 기원을 설명한 자료로 이 글에서 활용되지 않았다.

10 (바)에서 우리나라 양궁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원인은 철저하게 실력 중심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한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을 인과의 방법이라고 한다.

오답 해설

(나)에는 정의, (다)에는 분석, (라)에는 분류·구분과 비교·대조, (마)에는 예시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11 (가)와 (나)는 모두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

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하는 글이다.

12 (가)에서 태양 빛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부분과 (나)에서 양궁의 활의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분석의 방법이 사용되었다(ㄴ). 또한 (가)에서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뜻을 풀이하는 부분과 (나)에서 양궁의 개념을 밝히는 부분에서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ㄱ).

오답 해설

ㄴ. (가)와 (나)에는 모두 두 대상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비교의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ㄷ. (가)에는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예로 들어 자외선의 특징을 설명하는 예시의 방법이 쓰였으나, (나)에는 예시의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13 [서술형] ㉠과 ㉡이 속한 문단은 모두 글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부분은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설명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과 ㉡은 ‘중간’ 부분에서 설명할 내용을 제시하는 문장으로, ‘처음’ 부분의 역할을 잘 보여 주고 있다.

14 [서술형] 활의 구조를 시각 자료를 통해 보여 주면, 활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본문 156~161쪽

- 01 ⑤ 02 ⑤ 03 ④ 04 재생 건축물은 오히려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풍경을 연출하여 도시의 미관을 돋보이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5 ⑤ 06 ①
07 ⑤ 08 ③ 09 ㉠ 긍정적 ㉡ 부정적 10 ②
11 ② 12 ③ 13 ② 14 정의, 대상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15 ③ 16 ① 17 ⑤

01 글쓴이는 오래된 건물을 무조건 허물어 버리는 것보다 지난 시대의 건축 유산을 보존하는 재생 건축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02 (나)에서 재생 건축이란 옛 건축물에서 기존의 골조는 그대로 두고 내부의 모습이나 용도를 현대 생활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건축물을 있는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재생 건축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건축물을 재생해서 사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성공적인 재생 건축의 사례인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예로 들어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증하고 있다.

③ (라)에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산업용 건물인 화력 발전소를 재생 건축의 방식으로 재탄생시킨 예이다.

④ (나)에서 재생 건축의 개념을 설명할 때 재생 건축은 건물의 골조인 뼈대는 그대로 두고 내부를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하였다.

03 ㉠은 논증 요소 중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글쓴이가 주장을 내세우는 까닭이고, ㉡은 논증 요소 중 '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이다.

04 [서술형] 가상 인터뷰의 질문은 (마)에 제시된 '예상되는 반론'에 해당한다. 이 반론에 대해 글쓴이는 (바)에서 삭막한 건물들 사이로 과거의 유산을 간직한 건축물이 자리한 모습은 오히려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풍경을 연출하여 도시의 미관을 돋보이게 만든다고 반박하였으므로, 이 내용을 답변으로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객관적인 근거와 예상되는 반론 및 그에 대한 반박 등의 논증 요소를 사용하여 짧은 영상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06 ㉠과 ㉡은 각각 한국뇌연구원의 김○○ 박사, ○○ 미디어 연구소의 말을 인용한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이다.

오답 해설

㉢은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이고, ㉣과 ㉤은 '반론에 대한 반박'으로 글쓴이의 입장과 일치한다.

07 (가)에서는 의미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가치 있게 만든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나)에서도 한국뇌연구원의 김○○ 박사의 말을 인용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주장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②, ③ (가)와 (나) 모두에 반론과 반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나)의 '짧은 영상 시청이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에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만, (가)에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8 (가)에는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독일의 줄페라인 복합 문화 단지, 서울의 북촌 한옥 마을과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오래된 건축물을 보존하고 재생하면 가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나)에는 우리 뇌는 자극적인 장면에 노출되면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된다는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짧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우리 뇌는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된다는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09 (가)는 재생 건축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 긍정적인 관점을, (나)는 짧은 영상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10 어떤 일을 절차와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설명하는 '과정'의 설명 방법은 (가)와 (나) 모두에 사용되지 않았다.

11 자외선 에이의 차단은 피에이로 표시하고 '+'가 많을수록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하였으므로 '+'가 1개인 ㉣가 '+'가 3개인 ㉠보다 차단율이 낮다.

오답 해설

① 자외선 비의 차단은 에스피에프로 표시하고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을 더 잘 차단한다고 했으므로, 자외선 비의 차단율은 35라는 숫자가 쓰인 ㉢보다 50이라는 숫자가 쓰인 ㉣가 높다.
③ 자외선 에이와 자외선 비 모두 ㉣가 ㉢보다 차단 효과가 더 크다.
④, ⑤ 에스피에프는 자외선 비를, 피에이는 자외선 에이를 차단한다고 하였으므로 ㉢와 ㉣ 모두 자외선 에이와 자외선 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12 (나)의 4문단에서는 올림픽 양궁 경기의 역사가 아니라 양궁 경기의 두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13 ㉠에서는 자외선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원인) 생물의 세포를 파괴한다(결과)고 하였고, ㉡에서는 평등한 환경에서 실력 중심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때문에(원인) 경쟁력이 유지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결과)고 하였으므로, ㉠과 ㉡에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오답 해설

㉢, ㉣, ㉤은 모두 구분의 설명 방법이고, ㉥은 분석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14 [서술형] [A]에는 태양 빛의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뜻을 풀이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B]에는 양궁의 뜻을 풀이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따라서 [A]와 [B]에 공통으로 쓰인 설명 방법은 '정의'이다.

15 (가)는 주관적 의견을 내세워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장하는 글이고, (나)는 객관적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이다.

오답 해설

㉠에는 '주관적 의견', ㉡에는 '논증', ㉢에는 '객관적 정보', ㉣에는 '설명'이 들어간다.

16 자외선을 반사하는 차단제는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하다고 하였으므로 ㉠은 적절한 반응이다.

오답 해설

② 사람의 피부에도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지만 표피만으로 자외선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③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표시가 나지 않으려면 피부에 투명하게 발리는 차단제인 '자외선을 열로 바꾸는 차단제'를 써야 한다.
④ 자외선을 반사하는 차단제는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하다고 하였으므로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자극을 일으킨다고 할 수는 없다.
⑤ 햇빛이 강한 날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양산 또는 모자를 쓰거나 긴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17 ㉠은 글쓴이의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이고, ㉡은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난 표현이다.

01 (가): 자원을 아낄 수 있고, 건축물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짧은 영상 시청이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02 근거: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은 버려진 화력 발전소를 재생하여 가치 있는 건축물이 되었다. 평가: 재생 건축으로 과거의 의미 있는 건축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03 대전제: 우리 뇌는 자극적인 장면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더 자극적인 장면을 원하는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된다. 결론: (따라서) 짧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우리 뇌는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된다.

04 ㉔ 자외선 차단제 ㉕ 양궁 활의 구조, 양궁의 종목

05 구분, [A]는 자외선을 막는 방법을 기준으로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를 나누었고, [B]는 활을 당기는 방식을 기준으로 양궁의 종목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 대조, [A]는 자외선 차단제의 두 종류의 장단점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견주었고, [B]는 양궁의 두 종목의 특성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견주었기 때문이다.

06 ㄱ, ㉔에는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방법이 쓰였는데, ㄴ도 꽃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요소 글쓴이의 주장과 이유 파악하기

01 (가)의 1문단에서 글쓴이는 과거의 건축 유산을 보존하는 재생 건축이 유용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이유를 2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다. (나)의 1문단에서 글쓴이는 '청소년이 짧은 영상을 계속 보는 것은 왜 나쁠까?'라는 질문을 통해 짧은 영상이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가)와 (나)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가)와 (나)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에 나타난 근거를 파악하고 근거의 적절성 평가하기

02 (가)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재생 건축을 통해 의미 있는 건축물을 보존한 성공적인 사례임을 보여 주면서 이를 통해 재생 건축으로 의미 있는 건축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근거와 평가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근거와 평가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에 쓰인 연역의 논증 방법 파악하기

03 (나)는 짧은 영상이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A]에서 연역의 논증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A]에 쓰인 삼단 논법의 대전제, 소전제, 결론은 각각 '우리 뇌는 자극적인 장면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더 자극적인 장면을 원하는 '중독 현상'에 빠진다', '짧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것은 우리 뇌가 자극적인 장면에 계속해서 노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짧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우리 뇌는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대전제와 결론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대전제와 결론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의 설명 대상과 설명 내용 파악하기

04 (가)는 자외선 차단제를 설명 대상으로 하여, 자외선 차단제의 표시 기호인 에스피에프와 피에이의 의미, 자외선 차단제의 두 종류인 자외선을 반사하는 차단제와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로 바꾸는 차단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양궁을 설명 대상으로 하여 양궁 활의 구조와 양궁의 두 종목인 리커브와 컴파운드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㉔와 ㉕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㉔와 ㉕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의 종류 이해하기

05 [A]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구분의 설명 방법과 자외선 차단제의 두 종류의 장단점을 견주는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B]에도 양궁의 종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구분의 설명 방법과 양궁의 두 종목의 차이점을 견주는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설명 대상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설명 방법이다.

채점 기준	배점
설명 방법의 종류 두 가지와 각각에 대한 까닭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설명 방법의 종류 한 가지와 그것에 대한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7점
설명 방법의 종류 두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5점
설명 방법의 종류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글에 쓰인 설명 방법의 종류 이해하기

- 06 ㉠에는 양궁의 활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에는 꽃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에는 예시, ㉣에는 비교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채점 기준	배점
㉠에 쓰인 설명 방법을 맞게 쓰고, 그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에 쓰인 설명 방법만 맞게 쓴 경우	4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3 의미를 담은 표현, 매체로 보는 세상

(1)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본문 166쪽

개념 확인 **꼭**

- 1 피동 2 주체 3 피동 접미사 4 직접 5 강조

이해 + 탐구 응용 문제

본문 170~175쪽

- 1 ⑤ 2 ③ 3 ② 4 그 사건의 범인이 구속되다.
5 ③ 6 주체 7 ⑤ 8 ② 9 숙제가 잘못 작성되었어.
10 ③ 11 ⑤ 12 그는 친구에게 잘 될 거라고 격려했다. 13 ① 14 ② 15 신뢰성

- 1 (나)의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히다.’에서 ‘어부에게’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이다.
2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3 ‘영수가 유리창을 깬다.’는 능동 표현이다. 이 문장의 피동 표현은 ‘유리창이 영수에 의해 깨졌다.’이다.

오답 해설

- ① ‘벽에 그림을 걸었다.’의 피동 표현이다.
③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의 피동 표현이다.
④ ‘지우가 정호를 말았다.’의 피동 표현이다.
⑤ ‘사자가 얼룩말을 물었다.’의 피동 표현이다.

개념 플러스

피동사에 의한 피동 표현

동사에 ‘-이’, ‘-히’, ‘-리’, ‘-기’나 ‘-되다’를 붙여 만들어진 피동 표현

- 보다 → 보이다
- 먹다 → 먹히다
- 열다 → 열리다
- 안다 → 안기다
- 생포하다 → 생포되다

통사적 피동 표현

‘-아/어지다’ 등을 활용한 피동 표현

- 그의 업적이 널리 알려졌다.

- 4 능동 표현의 목적어는 피동 표현의 주어가 되므로 ‘그 사건의 범인을’을 ‘그 사건의 범인이’로 바꾸고 동사인 ‘구속하다’에 ‘-되다’를 붙인다.
5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의 주체를 밝히지 않아 책임감과 부담감을 낮추거나 분산할 수 있다.

6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주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보는 이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다.

7 (가)는 피동 표현이고, (나)는 능동 표현이다. 모든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의 (나)처럼 능동 표현을 활용하였을 때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8 ‘진수가 뽑혔어.’라는 피동 표현은 진수가 당선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적인 표현이다.

오답 해설

- ① 피동 표현은 동작의 주체보다는 동작을 당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이다.
- ③ 선거의 공정성과는 관련이 없다.
- ④ 말하는 이가 책임감을 낮추려는 것은 아니다.
- ⑤ 진수가 뽑혔다는 사실에 대한 감정적인 측면은 반영되지 않았다.

9 ‘네가 숙제를 잘못 작성했어.’는 상대방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고 부드럽게 표현해야 한다.

10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의미가 더 분명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피동 표현은 주체를 밝히지 않아 책임감과 부담감을 낮출 수 있다.
- ② 피동 표현은 말하는 주체를 밝히지 않아 내용이 객관적으로 전달된다.
- ④ 피동 표현은 완곡하고 부드럽게 표현되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한다.
- ⑤ 피동 표현은 동작을 당한 대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11 (가)의 직접 인용에는 ‘라고’가 붙고 (나)의 간접 인용에는 ‘고’가 붙었다. 즉 뒤에 붙는 말이 다르다.

12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게 되면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은 쓰지 않고, 대상을 가리키거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문장의 종류에 따라 종결 어미가 바뀔 수 있으나 주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개념 플러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사용할 때의 장점과 유의점

	장점	유의점
직접 인용	원문의 정확성과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음.	내용을 변형 없이 그대로 써야 하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함.
간접 인용	글의 흐름에 맞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함.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14 직접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내용을 강조할 수 있고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다.

15 (가)처럼 최영 장군과 같은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면, 유명인이 주는 권위로 인해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176~179쪽

- 1 ④ 2 ⑤ 3 간접, 된다고 4 ③ 5 ③ 6 피동 7 ④

1 이 광고는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의해 통제를 받는 상황이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나)에는 ‘스마트폰이’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가 생략되어 있다.

3 간접 인용에서 뒤에 붙는 말은 ‘고’이므로 ‘된다고’를 ‘된다고’로 고쳐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인용 표현을 활용한다고 해서 글쓴이의 의도가 더 잘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자신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내용을 강조한다.
- ②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객관적인 느낌이 든다.
- ④ 해당 분야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 ⑤ 다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실감이 난다.

5 일기 예보라는 매체 자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므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6 피동 표현은 능동 표현에 비해 내용을 객관적인 사실로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서 다양한 매체 자료에 많이 활용된다.

7 인용 표현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내용을 강조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한다.

오답 해설

- ① 의사의 말을 직접 인용하였다.
- ② 식품 업체의 설문 조사 결과와 활동을 간접 인용하였다.
- ③ 특정 업체의 설문 결과와 활동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임을 알 수 있다.
- 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신뢰성이 높아진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181쪽

- 1 견인 2 ①

- 1 '견인'은 '끌어서 당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팀을 이끌거나 차량을 끌어당긴다는 의미로 활용할 수 있다.
- 2 '분산'은 '갈라져 흩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의미하는 단어로 '의견이 나뉨.'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분라: 서로 나뉘어 떨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③ 분석: 얹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④ 분란: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움.
 ⑤ 분배: 몫몫이 벌려 나눔.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184~185쪽

- 01 ④ 02 ⑤ 03 ① 04 뒤집었다 → 뒤집혔다, 쏟았다 → 쏟아졌다, 담았다 → 담겼다 05 ① 06 ④
 07 ⑤ 08 현지가 전화로 거기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09 ⑤ 10 ① 11 ⑤

- 01 피동 표현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됨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하는데 능동 표현과 대응된다.

오답 해설

- ①, ③ 능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② 피동 표현은 동작에 관련된 표현으로, 듣는 사람의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⑤ 사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개념 플러스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주어	행동을 당함.	행동을 시킴.
동작의 수행자	주어가 아님.	주어가 아님.
특징	결과 중심의 서술에 적합함.	교육, 지시, 명령 상황에 자주 사용함.
예시	문이 닫혔다.	철수가 동생에게 문을 닫게 했다.

- 02 '잡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만, '잡히다'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
- 03 '새기다'는 '글씨나 형상을 파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누군가 바위에 글씨를 새기었다.'는 능동문이다. 이를 피동문으로 바꾸면 '글씨가 바위에 새겨졌다.'이다.

오답 해설

- ② '사용된다', ③ '쫓기게', ④ '이루어질', ⑤ '물리치'에 피동 표현이 사용되었다.

- 04 [서술형] <보기>에서 어색한 부분은 모두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하는 것을 능동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승부가'와 어

울리는 피동 표현인 '뒤집혔다'를, '눈물이'와 어울리는 피동 표현인 '쏟아졌다'를, '추억이'와 어울리는 피동 표현인 '담겼다'를 사용해야 한다.

- 05 '컵이 깨졌어요.'의 능동 표현은 '내가(제가) 컵을 깼어요.'이다. 능동 표현에는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만 '컵이 깨졌어요.'라는 피동 표현에는 행위의 주체를 밝히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 06 도서관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안내하는 것은 주체를 숨기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피동 표현은 보는 이에게 내용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 해설

- ㄱ. 피동 표현은 동작을 당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이다.
 ㄴ. 피동 표현은 강제성을 띠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읽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 07 인용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강조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말이나 글이 실감 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

- 08 [서술형]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꿀 때는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보기>의 직접 인용 표현에서 '여기'는 간접 인용 표현에서 '거기'가 되고, '연락해'도 '연락하라'로 바뀐다.

- 09 <보기>의 광고에서는 피동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보다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돌아보게 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 10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전달하려는 말이나 글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내용을 강조하며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인용의 주체는 글쓴이이므로 책임감을 덜어 낼 수는 없다.
 ③ 인용 표현을 사용하면 객관성이 높아진다.
 ④ 인용 표현과 읽는 사람의 감정과는 관련이 없다.
 ⑤ 글쓴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다.

- 11 의견에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처럼 표현하였고, 사실에는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전문가의 말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다.

(2) 매체 자료 분석하기

본문 186~187쪽

개념 확인

- 1 의사소통 2 매체 자료 3 ⑤ 4 사진 5 표
6 재현 7 × 8 ○ 9 ○ 10 고정 관념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190~199쪽

- 1 ③ 2 ⑦ 의도, ㉠ 관점 / 가치관 3 ④ 4 이미지
5 ⑤ 6 비판적 태도 7 ④ 8 비유 9 ②
10 ⑤ 11 배려 12 ③ 13 ④ 14 ④ 15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자.
16 이주 배경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고, 함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17 ④ 18 ③

1 매체 자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선택 또는 배제된 것이므로 정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2 동일한 정보도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 또는 가치관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

3 수용자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매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태도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정보 중에서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선택된 정보만 다루어진다.
② 제작자에 의해 정보가 선택되거나 배제되므로 편집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③ 매체 자료의 정보는 제작자에 의해 선택되어 재현된 정보이다.
⑤ 같은 정보라도 제작자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4 광고나 홍보물은 문구나 이미지로 사건, 쟁점, 인물 등을 표현하므로 문구나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 보면서 비판적인 태도로 평가해야 한다.

5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제작자가 재구성한 정보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정보라고 할 수 없다.

6 같은 대상도 제작자의 관점에 따라 매체 자료가 다르게 만들어진다. 즉 매체 자료에는 제작자의 관점이 들어 있으므로 수용자는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

7 아람이네 모듬은 시각 장애인이 유도 블록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이와 연관된 광고를 선정하였다.

8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을 시각 장애인의 '눈'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9 이 광고의 제작자는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이 노란색인 것에 착안하여 중요한 문구를 노란색으로 칠하여 눈에 띄게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표현 방법 중 '비유'가 활용되었다.
③, ④ 글자의 크기는 강조하거나 전달하려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광고에서는 '눈'이라는 글자를 크게 확대하여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⑤ 유도 블록 모양으로 '눈'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지만,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10 <보기>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고 인상적인 느낌을 준다.

11 이 광고는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 사용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각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공익 광고이다.

12 강산이네 모듬은 '에너지의 날' 관련 홍보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인상 깊은 홍보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불을 끄고'와 '별을 켜다'라는 구조가 비슷한 문장을 활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는 표현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법을 대구법이라고 한다.

오답 해설

- ① 설의법, ② 반어법, ③ 인용법, ⑤ 비유법에 대한 설명이다.

14 아이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표현된 것은 익명성과는 관련이 없다. 단지 별이 밝게 빛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어둡게 표현되었을 뿐이다.

오답 해설

- ① 아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이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별을 강조하기 위해 어둡고 대비되는 노란색을 활용하고 있다.
③ '불을 끄자'는 전등을 끄자는 것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미이다.
⑤ 에너지 절약이 일정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접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15 이 홍보물은 에너지의 날에 대해 알리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6 이 동영상 광고에서는 문구와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개념 플러스

이주 배경 학생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 다문화 학생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주 배경 학생은 국내 출생, 국제 결혼 가정 자녀, 중도 입국 학생, 외국인 가정 자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17 이 동영상 광고에서는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 광고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8 이 동영상 광고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한 모습만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학생들의 모습은 제작자에게 선택되지 않고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200~201쪽

1 ⑤ 2 ③ 3 위기감 / 불안감

1 이 아동복 광고는 성별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을 반영하고 있어서 아동복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나 광고에 노출된 아이들 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광고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문구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광고와 관련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제작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광고의 문구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 ② 광고의 이미지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 ④, ⑤ 제작자는 사회적 상황을 자신의 의도와 관점을 바탕으로 정보를 선택하거나 배제하여 광고를 구성한다.

3 이 광고는 노년에 국민연금에 없으면 빈곤하게 되고, 빈곤하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의미의 문구로, 빈곤에 대한 위기감을 조장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국민연금을 유지하게 하는 광고이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203쪽

1 ㉠ 비난 ㉡ 재현 2 (1) ㉢ (2) ㉤ (3) ㉠

1 단어가 들어갈 앞뒤 문장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비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또 어떠한 장면이 마치 과거의 기억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므로 '재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알맞다.

2 ②에 제시된 '배제-배척', '선호-선정', '이주-상주'는 뜻이나 쓰임이 혼동될 수 있는 단어로 뜻을 알고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배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선정: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이주: 본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김.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206~207쪽

01 ④ 02 ③ 03 ③ 04 매체 자료를 볼 때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05 ② 06 ③ 07 ④ 08 문구를 통해서 이주 배경 학생을 차별하지 말자는 의미를 표현하였다. 영상 장면을 통해서 여러 나라 출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밝은 모습을 표현하였다. 09 ③

01 (가)~(다)는 영상을 본 후 선생님과 학생들이 매체 자료가 정보를 재현하는 방식과 특징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오답 해설

- ① 매체 자료의 특징을 다루었지만,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 ② 영상물의 윤리적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 ③ 대화 당사자들의 의견 대립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매체 자료의 재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02 <보기>는 매체 자료를 만드는 것을 다양한 재료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믹서에 갈아 주스를 만드는 것에 비유하였다. 이것은 매체 제작자가 정보를 선택하고 편집하여 보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03 물이 반만 담긴 물컵에 대해 두 학생이 다른 관점을 보인 것에 대해 선생님은 같은 정보라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관점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다.
- ② 하나의 정보라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담길 수 있다.
- ④ 관점의 다양함을 말하고 있을 뿐, 긍정적 관점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 ⑤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말할 뿐, 대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04 [서술형] 선생님은 매체 자료를 볼 때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잘 파악해야겠다는 학생의 말을 받아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하여 매체 자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05 (가)는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의 의미를 문구로 제시하여 유도 블록 활용이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 시각 장애인을 배려하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와 (다)는 공익 광고이고, (나)는 공익적 홍보물이다.
- ③ (나)는 '에너지의 날' 관련 홍보물로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고 있다.

- ④ (다)는 동영상 광고이므로 현장성과 사실성이 높다.
 ⑤ (라)는 아동복을 판매하기 위한 상업 광고이다.

06 (가)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각 장애인의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이지 단정적인 어조로 비장애인들의 배려 없는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7 (나)에서 신비로운 밤하늘의 이미지는 우리가 너무 많은 빛을 사용함으로써 지금은 보지 못하는 원래의 밤하늘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어두운 배경에 별만 밝은 노란색으로 표현하였다.
 ② 검은색으로 그려진 지구는 전등 끄기에 동참한 전 인류를 의미한다.
 ③ 아이는 미래 세대를 의미한다.
 ⑤ 에너지 절약은 전 세계적 관심이 필요한 일임을 의미한다.

08 [서술형] (다)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라는 문구는 이주 배경 학생도 모두 '우리'이므로 '차별하지 말자.'는 의도로 제시하였고, 영상은 여러 나라 출신 학생들이 즐겁게 모여 있는 장면으로 함께 어울려 지내는 밝은 모습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제시하였다.

09 (라)는 남녀의 성별에 따른 특성과 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광고라는 문제점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대상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과장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꾸미고 속이는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남녀의 성 역할에 관한 사회의 변화된 인식이 반영되지 않았다.
 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본문 214~219쪽

- 01** ④ **02** ② **03** ⑤ **04** ① **05** ④ **06** 수지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07** ④ **08** ④
09 아빠, 어제 언니가 영화는 오늘 보자고 말했어요. **10** ②
11 ③ **12** ② **13** ④ **14** 강산 **15** ④ **16** ①
17 ① **18**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이 당신에게 밟혔다.
19 ⑤ **20** ① **21** ④ **22** 한국 문화와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배려하는 내용을 보완한다. **23** ④
24 ③ **25** ⑤ **26** ⑤

01 (가)의 능동 표현은 주체의 동작이 능동적이고, (나)의 피동 표현은 주체의 동작이 피동적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주어는 '아버지'이고, (나)의 주어는 '물고기가'이다.
 ②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동사의 형태가 달라진다.

- ③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은 같은 내용이지만, 문장의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⑤ (나)에서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인 목적어가 필요 없다.

02 '엄마가 순희를 웃긴다.'는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사동 표현이 쓰인 문장이다.

03 '나도 모르게 문이 저절로 열려졌다.'는 '나도 모르게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써야 자연스럽다. '열려졌다'는 '열다'에 '-리-'와 '-어지다'가 함께 붙은 이중 피동이다.

오답 해설

①, ③, ④는 '-되다'를, ②는 '-어/아지다'를 활용한 피동 표현이다.

04 아이가 '제가 컵을 깬어요.'가 아니라 '컵이 깨졌어요.'라고 주체를 숨기는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컵을 깬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05 피동 표현은 주체를 드러내지 않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한다. 그리고 읽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내용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읽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지는 않는다.

06 [서술형] 배구 선수 선발 결과를 말할 때, 누가 뽑혔느냐가 중요 내용이므로 '배구 선수로' 수지를 뽑았어.'라는 능동 표현 보다는 '수지가 뽑혔어.'라는 피동 표현이 수지에게 더 초점이 맞춰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07 손님이 "여기 식탁이 안 닦였어요."라고 피동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요청하기 위해서이다.

08 (나)에서 나타난 인용 표현은 간접 인용으로 '고'를 사용하였다.

09 [서술형]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뀌기도 한다. 언니가 말한 시점에서 '내일' 보자고 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오늘'이 된다.

10 <보기>의 대화에서는 인용 표현을 통해 선생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여 실감 나게 전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 인용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약하여 제시할 수 없다.

11 <보기>의 광고에서 ㉠과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태도를 돌아보게 하려는 의도이다. ㉠의 능동 표현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의 부담감을 덜어 주는 것은 아니다.

12 '-게 하다'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사동 표현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책을 읽게 했다.'의 경우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책을 읽도록 시켰다는 뜻이므로 피동 표현이 아니라 사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 ① 책이 읽히는 동작을 당하는 것이므로 피동 표현이다.
- ③ 어머니가 제힘으로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이므로 능동 표현이다.
- ④ 큰따옴표로 정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직접 인용 표현이다.
- ⑤ 문장 부호 없이 인용하였으므로 간접 인용 표현이다.

13 ㉔의 '실렸다(실리다)'는 '다른 기운을 함께 품거나 띠다.'라는 뜻의 동사 '실다'의 피동 표현이다.

14 강산의 말 '추워서 온몸이 떨렸어.'에서 '떨렸어(떨리다)'는 '떨다'에 '-리-'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추워서 온몸을 떨었어.'이다.

15 <보기>는 정보가 매체 자료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의해 선택되고 배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매체 자료를 대할 때는 비판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제작자의 의도를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16 (가)는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의 의미와 현황을 다루고 있는 공익 광고이고, (나)는 에너지의 날에 있을 소등 행사를 홍보하는 홍보물이므로 모두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매체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현장감과 사실성이 극대화된 매체는 동영상이다.
- ③ 색상의 대비가 드러나는 (나)에만 해당한다.
- ④ (가)와 (나) 모두 시각적인 이미지를 배제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
- ⑤ (가)는 공익 광고, (나)는 홍보물로 제작자가 의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17 (가)는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을 시각 장애인의 '눈'과 '내비게이션'에 비유하여 표현하였고 유도 블록을 밟고 서 있는 특정 행동이 시각 장애인을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 ㉠ 앞뒤가 맞지 않은 표현은 역설법을 활용한 표현을 말하는데 (가)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 ㉡ (가)는 고백적인 어투가 아니라, 설득을 위한 차분하고 단호한 어투가 사용되었다.
- ㉢ 인용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18 [서술형] <보기>의 문장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려면, 주어나 조사, 동사의 형태 등을 바꿔 써야 한다.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이 주어가 되고 동사는 '밟다'에 '-히-'를 붙인 '밟히다', 즉 '밟혔다'가 된다.

19 지구를 검은색으로 표현한 것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불을 끈 지구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한다면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20 (가)는 이주 배경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고 배려하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공익 광고로 인식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며, (나)는

상업 광고로 아동복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21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밝은 분위기로 표현했지만, 이주 배경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영상 속 등장인물을 통해 이주 배경 학생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② '우리'를 큰 글씨로 표현하여 광고를 통해 전달하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재생 버튼을 통해 동영상 광고임을 알 수 있다.
- ⑤ '우리는 모두 우리'를 통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함을 알 수 있다.

22 [서술형] (가)에는 학교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교류에 잘 적응하고 있는 이주 배경 학생들만 등장한다. 그렇지 못한 이주 배경 학생들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배려하는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

23 (나)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한 고정 관념이 드러나 있는 것은 맞지만, 여성을 남성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 ② 여자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공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③ 남자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영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⑤ 고정 관념에서 비롯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색깔이나 사물, 자세 등으로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4 (가)에서 선생님은 매체 자료의 정보를 비판적 태도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목을 보고 내용을 추측해 보는 것은 기사를 읽는 방법은 될 수 있으나 비판적 태도로 읽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25 제작자와 수용자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의도와 달리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26 ㉠ '버리다'는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쏘거나 하다.'를 의미한다. 이는 주어가 동작을 제힘으로 하는 것이므로 능동 표현이다.

오답 해설

- ① ㉠의 '쌓입니다(쌓이다)'는 피동 표현이다.
- ② ㉡은 간접 인용 표현이므로 '된다라고'를 '된다고'로 바꿔 써야 한다.
- ③ ㉢의 '줄이는'은 피동 표현이 아니라 사동 표현이다.
- ④ ㉣은 직접 인용 표현이므로 '고'를 '라고'로 바꿔 써야 한다.

01 (가)는 '꺾다'가 아닌 '깨졌다'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해 컵을 깬 동작의 주체인 자신을 숨겨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02 (나)는 허용하지 않는 주체를 드러내지 않는 피동 표현을 사용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고, 보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03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등이 달라진다.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뒤에 붙는 말이 달라진다.

04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신뢰감을 주고 있다.

05 매체 자료는 제작자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정보를 선택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06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에서는 환경 단체가 통행을 방해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도했지만, 다른 매체에서는 동일한 환경 단체의 모습을 보도하면서 환경 단체가 지역의 환경 오염 시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전했다. 나는 이러한 차이를 보면서 모든 매체 자료는 수용자가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07 ㉠은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을 '눈'과 '내비게이션'에 비유하여 시각 장애인들이 유도 블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은 구조가 비슷한 문장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8 ① 여자아이에게는 '공주', '예쁜'이라는 표현을, 남자아이에게는 '영웅', '용감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② 여자아이에게는 분홍색 옷을, 남자아이에게는 파란색 옷을 입혔다.

③ 여자아이는 손거울을 보고 있고, 남자아이는 축구공을 가지고 있다.

평가 요소 피동 표현의 사용 의도와 효과 파악하기

01 (가)는 컵을 깬 것을 컵이 깨졌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컵을 깬 동작을 한 주체인 자신을 감추어 컵을 깬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와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의도나 효과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과 의도, 효과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1점

평가 요소 피동 표현의 사용 의도와 효과 파악하기

02 (나)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주체를 드러내어 명령어와 같은 표현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주체를 드러내지 않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와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나, 의도나 효과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조건>에서 언급한 내용과 의도, 효과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1점

평가 요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차이점 이해하기

03 <보기>의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려면 ㉠의 '뭘까요?'를 '되냐고'로, ㉡의 '여기'를 '거기'로, ㉢의 '내일'을 '오늘'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뒤에 붙는 말 '라고'를 '고'로 바꾸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차이를 이해하여 유의할 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	10점
바꿀 때의 유의할 점을 두세 가지만 서술한 경우	5점
유의할 점을 한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1점

평가 요소 인용 표현의 효과 이해하기

04 디지털 기기의 탄소 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 분석가로 일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신뢰감을 주는 효과를 얻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직접 인용 표현임을 밝히고 효과를 두 가지 서술한 경우	10점
직접 인용 표현임을 밝히고 효과를 한 가지 서술한 경우	5점
직접 인용 표현임을 밝혔으나, 효과는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1점

평가 요소 매체 자료의 특성 이해하기

05 <보기>의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매체 자료에 담긴 정보는 제작자가 선택하고 재구성하여 재현한 정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선택'과 '재구성'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체 자료의 특성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매체 자료는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1점

평가 요소 매체 자료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 이해하기

- 06** 매체 자료는 동일한 정보를 다루더라도 제작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매체 자료를 아무런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편협된 사고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편견 등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수용자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인 태도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매체 자료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논리적으로 서술된 경우	15점
매체 자료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자신의 경험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10점
매체 자료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1점

평가 요소 광고와 홍보물의 주제와 표현 방법 파악하기

- 07** ㉠은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을 시각 장애인의 '눈'과 '내비게이션'에 비유하여 시각 장애인이 유도 블록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의 문제점을 표현함으로써 시각 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은 구조가 비슷한 문장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의 주제와 표현 방법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과 ㉡의 주제 또는 표현 방법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5점
㉠과 ㉡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1점

평가 요소 광고에 반영된 고정 관념 추론하기

- 08** 이 광고에 사용된 문구와 이미지를 통해 여자와 아이와 남자와 아이, 즉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고정 관념 세 가지를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10점
고정 관념을 한두 가지만 제시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1점

4 문학 속의 세상, 공감하는 우리

(1) 문학으로 만나는 삶

본문 224~225쪽

개념 확인

- 1 반영 2 주제, 의도 3 ㉠ 4 여성의 재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당시의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5 시나리오 6 대사, 행동 7 ㉠ S# 51 ㉡ 우리도 간판 합시다! 영화 간판! 이게 ㉢ (봉두의 홍보판을 가리키며) 8 극 9 ㉢

본문 228~249쪽

확인 문제

- 1 ㉠ 2 ㉡ 3 우리말과 우리글에는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우리말과 우리글이 사라지면 그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신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4 ㉠ 5 ㉡ 6 ㉡ 7 ㉡ 8 표면적 이유: 이번 달 잡지책을 전해 주기 위해서 / 실제 이유: 판수에게 자신의 오해를 사과하기 위해서 9 ㉠ 10 ㉠ 11 ㉠ 12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말이 모이고, 말이 모이는 곳에 뜻이 모이고, 그 뜻이 모인 곳에 독립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어서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사전 원고를 빼앗기 위해서 22 ㉡ 23 ㉢ 24 우리말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일제가 폭력으로 핍박하였다. / 일제의 탄압 속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 25 ㉢ 26 ㉢ 27 우리말과 우리글을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감시에 굴하지 않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28 ㉡ 29 ㉠ 30 ㉡ 31 ㉠ 32 ㉡ 33 ㉢ 34 문을 막아서 사전 원고를 챙겨 달아날 시간을 벌기 위해 / 일본 경찰에게서 사전 원고를 지키기 위해 35 ㉠ 36 ㉠ 37 ㉠

- 1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정환은 주시경의 '조선어 사전' 원고를 가지고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함께 책방으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전국의 사투리를 모아 우리말 사전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은 조선어학회가 우리말 사전 편찬을 위해 모아 온 16만 2천5백7십3개의 우리말 단어이므로, '벤포'와 같은 일본말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판수의 말에 대답한 자영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판수는 우리말을 모으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자영의 말을 통해 '도시락'과 같은 조선말을 모은 단어장, 공책, 원고등임을 알 수 있다.
- ⑤ '16만 2천5백7십3개예요.', '여기까지 오는 데 10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는데…….'라는 자영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3 [서술형] 자영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 정신이 담긴 '우리'라는 표현을 예로 들어 우리말과 우리글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4 자영이 읽은 신문의 내용을 통해 일본이 조선인들도 일본어를 쓰기를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동익과 같이 활동하던 작가들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다.
- ② 신문에 '창씨'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 ③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전쟁에 이기겠다는 결의를 강요하고, 박훈은 이를 조선인들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쓰려는 계획이라고 해석하였다.
- ④ 신문의 내용은 일본의 정책을 홍보하고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5 박훈은 '조선인들에게 일본어 가르쳐서 전쟁터 총알받이로 쓰겠다'는 일본의 의도에 분노하며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에 소속되어 일제의 뜻에 동참하는 문인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동익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문인들에게 분노를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다.
- ③ 자영은 박훈이 이전에 같이 활동하던 작가들의 친일로 인해 괴로운 동익에게 화를 내는 것을 말리고 있다.
- ④ 자영이 신문 내용을 반긴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조 선생은 동익의 괴로운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6 정환은 약을 찾기 위해 사무실을 뒤지는 판수의 행동을 회비를 훔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판수가 스스로 '까막눈'이라고 칭하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④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정환의 말을 들은 판수는 겉으로는 냉정하게 말하지만, 정환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쁨의 몸짓'을 한다.
- ⑤ 정환의 앞에서는 냉정하게 말하고 정환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기뻐하는 판수의 모습으로 보아 판수의 진짜 마음은 정환의 사과를 반기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환이 보는 앞에서 냉정하게 말한 것은 이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정환에게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7 '문인'은 학문이나 문예 창작에 종사하는 작가, 시인 등을 가리키는 말로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는 단어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일제 강점기에 조선식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② 일제 강점기에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 된 백성이라 하여 일본이 자국민을 이르던 말이다.
- ③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만든 친일 단체의 이름이다.
- ⑤ 일제의 편에 서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탄압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8 [서술형] ③에 나타난 정환의 대사를 통해 정환이 이번 달 잡지 책을 전달한다는 핑계로 판수에게 사과하기 위해 찾아왔음을 알 수 있다.

9 정환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말이 모이고, 말이 모이는 곳에 뜻이 모이고, 그 뜻이 모인 곳에 독립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민들레 흙씨처럼 그 걸음걸음이 퍼져 나가면, 세상을 바꾸고, 독립을 이룰 수 있다'던 정환 아버지의 가르침과 같은 생각이다.

오답 해설

- ① 정환은 판수에게 자신의 사연을 진술하게 털어놓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사과하며 판수를 '동지'라고 칭했다.
- ②, ④ 정환은 신념을 가지고 독립을 위해 행동하던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아버지가 친일을 하게 되자 도망치듯 유학을 떠나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다.
- ③ 정환은 사람들의 말과 뜻을 모으는 것이 독립을 위한 길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며 판수를 오해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다.

10 ①에는 개인보다 공동체의 힘을 강조하는 정환 아버지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세상을 바꾸고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정환 아버지의 믿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② 어느 한 사람의 큰 힘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은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③ 사람들의 힘이 모이면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 ④, ⑤ 정부나 다른 나라의 힘을 중시하는 생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11 박길남은 조선어로 말을 거는 정환에게 조선어를 할 줄 몰라 알아들을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낼 뿐, 조선 사람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②, ⑤ 박길남과 정환의 만남은 정환이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모르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말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된다.
- ③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한 일본의 정책이 불려온 결과는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긴 우리말의 말살을 꾀한 것이다.
- ④ 박길남은 정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조선말, 할 줄 몰라요."라고 답했다.

12 [서술형] 박길남과의 만남을 계기로 사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정환의 말에 뒤이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전을 만들어 우리말을 지키는 것이 곧 독립의 길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정환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13 판수는 광주, 평양, 제주, 온양, 강릉 등 전국 각 지역 출신의 감옥소 식구들을 데려와 자기 지역의 사투리를 구사하게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공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③ 비속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④ 판수 패거리라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였으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 ⑤ 판수 패거리들은 다양한 지역 출신 인물들로, 다양한 사투리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하였다.

14 판수 패거리는 사투리 수집을 위해 판수가 데려온 인물들로, 우리말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감옥소 식

구인 판수를 따라 조선어학회에 온 것이다.

- 15 판수는 우리말 사전을 만들고자 하는 정환을 돕기 위해 사투리 수집에 도움을 주고자 감옥소 식구들을 데리고 왔다. 정환의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의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정환의 뜻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③ 판수의 말을 들은 정환이 함께 미소 짓는 것으로 보아 판수와 정환의 뜻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판수의 행동은 정환의 뜻을 도우려는 것으로, 이전의 두 사람의 갈등은 이미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판수의 말은 정환의 뜻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정환에게 자신이 까마득임을 숨기려는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16 폐간 명령서에는 조선어 신문 폐간, 조선어 잡지 폐간, 조선어 책방 폐쇄라는 일제의 정책들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우리말 말살 정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할 수 있다. 10, 11에서는 일제가 조선인을 강제 징병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17 ㉠은 정환과 판수가 생각한 빠른 시일 안에 사투리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폐간 명령서로 인해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정환의 태도는 어떻게든 사전을 편찬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18 사전 원고가 어디 있느냐는 가와모토의 질문에 박훈은 원고가 있었다면 총독부에 출판 허가 신청을 했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모든 서적 출판을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⑤ 우에다, 가와모토를 비롯한 일본 경찰들은 조선어학회 사무실에 처들어와 회원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총으로 협박하며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다.
- ② 사전 원고가 어디 있느냐는 가와모토의 질문에 대한 박훈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일본 경찰들의 폭력에도 사전 원고의 행방을 말하지 않고 있다.

- 19 이 글에는 우리말을 지키려는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조선인을 탄압하려는 일본 경찰의 갈등(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 20 ㉠은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지시문이다. 지시문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은 인물의 동작을 지시하고 있다.

- 21 [서술형] 우에다와 가와모토가 찾으려는 것은 사전 원고이다.

- 22 정환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표준어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거짓으로 친일 단체에 가입한 것이다.

- 23 조선어학회는 10년 동안 우리말 단어를 모으고 전국의 사투리를 모으며 사전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후 사람들을 모아 표준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표준어를 정하여 사전을 완성

시키고자 하였다.

- 24 [서술형] 조 선생은 우리말 사전 원고를 지키려다 일본 경찰에게 끌려갔고 고문으로 죽게 되었다. 이러한 조 선생의 모습은 당시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폭력과 그러한 폭력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키려는 뜻을 꺾지 않았던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 준다.

- 25 정환이 단어장에 적힌 엉덩이와 궁둥이의 뜻풀이를 읽어 주어도 교사들은 ‘모르는 눈치’였다.

오답 해설

- ① 정환의 말을 통해 마침내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표준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쁨과 감동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공청회를 시작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정환 일행을 보며 판수 패거리가 ‘뭉클한 표정’을 짓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감동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경상도 교사는 표준어를 정하는 일을 ‘휘뚜루마뚜루’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 ⑤ 전라도 교사는 표준어를 정하는 과정을 ‘또까 서둘러야겠당께.’라고 말하고 있다.

- 26 ㉠, ㉡, ㉢은 궁둥이의 사투리 표현이고, ㉣, ㉤은 엉덩이의 사투리 표현이다.

- 27 [서술형] ㉡에는 표준어 공청회가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정보가, ㉣에는 표준어 공청회가 열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깊은 밤에 불빛을 막고 개최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 28 S# 94를 통해 일본 경찰들이 조선어 교사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감시했음을 알 수 있다.

- 29 18에서는 판수의 기지와 재치로 교사들이 단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게 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판수가 조선어학회의 일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정환을 보완하는 존재로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판수는 분필을 묻힌 의자에 정환을 앉혀 엉덩이와 궁둥이의 위치를 눈으로 보여 주고 그림을 통해 엉덩이, 궁둥이, 불기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시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단어를 설명하고 있다.

- 30 S# 94에서는 일본 경찰이 조선어 교사들과 조선어학회 관련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위기가 이어질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일본 경찰들은 사전 편찬을 저지하고자 하므로 우리말 사전 편찬의 장애요인이다.
- ② 일본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므로 표준어 공청회에 위기가 닥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⑤ 일본 경찰들이 표준어 공청회에 대해 알아차리는 장면으로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일본 경찰의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1 이 글에는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는 상징적 소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①, ④ 극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일본 경찰들의 시도와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의 다급한 행동을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 ② 일본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말모이 원고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 ③ 우리말을 지키려는 활동을 폭력으로 탄압했던 일제 강점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32 도망치려던 판수 패거리의 극장 안에 남아 경찰들을 막겠다는 사람들을 보고 함께 남기로 결정한다.

오답 해설

- ①, ③ 판수는 조선어 교사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하지만, 교사들은 남는 것을 선택하였다.
- ④ 판수 패거리의 사람들의 대피를 돕고 도망치려 했지만, 말모이 원고를 지키기 위해 극장에 남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들 역시 극장에 남기로 결정하였다.
- ⑤ 판수 패거리와 조선어 교사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사전 원고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였다.

33 ㉔은 조선어 교사들을 보며 머뭇거리고 있는 춘삼에게 빨리 나가자고 독촉하는 봉두의 말이다. ㉑, ㉒, ㉓, ㉕은 모두 극장 안에 남겠다는 인물의 의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34 [서술형] “원고가 먼저랑께, 원고부터 챙겨서 나가시오, 여그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와 같은 대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35 작가는 정환과 판수, 조선어학회 사람들, 판수 패거리, 조선어 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희생과 의지가 일제의 폭력과 탄압 속에서도 우리말 사전 원고를 지킬 수 있었던 힘임을 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정환은 사전 원고를 지킨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원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 ② 판수가 아들의 학비를 위해 정환의 가방을 훔치는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정환과 판수의 만남을 위한 계기로 나타날 뿐 우리 민족의 가난하고 궁핍한 삶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 ③ 사람들이 일제의 탄압에도 끝까지 저항했던 것은 학문 탐구 열정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글,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 ④ 정환 아버지나 동익의 동료 문인들을 통해 일본의 편에 붙은 기회주의적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는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다.

36 “다들 미쳤어?”라는 판수의 대사는 경찰이 곧 쳐들어오는 위협한 상황에서 그곳에 남겠다는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대한 걱정과 염려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7 ‘민들레 흠씨’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던 조선 민중을 상징하는 소재로, 판수와 정환을 비롯한 조선어학회 회원들, 조선어 교사들, 판수 패거리, 사투리 수집에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과 우체부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1 ③ 2 ② 3 ④ 4 정환에게 있어서 ‘말모이’의 완성
은 우리말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독립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5 ④ 6 ⑤ 7 ①

1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일제의 탄압에도 계속하여 사전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판수는 전국 각 지역 출신의 감옥소 식구들을 불러 모아 조선어학회의 사투리 수집을 도왔다.
- ② 일본 경찰들이 표준어 공청회를 급습하자, 조선어학회 사람들과 전국의 조선어 교사들은 말모이 원고를 지키기 위해 일본 경찰들을 막았다.
- ④ 대동아 극장에서 열린 표준어 공청회에는 정환과 판수를 비롯한 조선어학회 사람들과 전국의 조선어 교사들, 판수 패거리 등이 참여하였다.
- ⑤ 정환은 판수에게 자신이 오해한 것을 사과하고 판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2 정환이 판수의 집을 찾아간 것을 계기로 판수는 정환이 우리말 사전을 왜 완성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었고, 이후 조선어학회가 사전을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㉑~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정환의 사과, 사투리 수집, 원고 빼앗김, 표준어 공청회 개최, 일본 경찰의 극장 습격이 적절하다.

3 조선 사람이면서 조선말을 할 줄 모르는 박길남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우리말을 쓰지 못하고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서술형] 정환이 사전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말을 사라지게 하려는 일제의 정책에 맞서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말을 지키는 것이 독립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5 말을 모으는 일의 가치에 공감하지 못하던 판수는 조선어학회 사람들을 도우면서 우리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전 편찬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화를 보여 준다. 그러나 판수가 우리말이나 우리글 연구에 매진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6 ‘민들레’는 일제 강점기 우리말과 우리 문화, 우리 민족정신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의지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7 작가는 ‘조선어학회가 만든 사전에 전국의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⑤ 작가는 일제 강점기를 ‘탄압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조선어 교사들과 판수 패거리 등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보상이나 대가와 상관없이 우리말 사전 원고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일본 경찰들을 막아선다. 이는 작가에게 감동을 준 사람들의 귀한 마음이 잘 표현된 부분이다.
- ④ 작가는 사전 편찬에 동참한 ‘전국의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귀

하게 느껴져 이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어 한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254~257쪽

- 1 ③ 2 ④ 3 ⑤ 4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 작품의 주제, 작가의 의도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작품을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3연에 '이제 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2 비둘기는 개발과 도시화로 자연에서도 인간들에게도 '쫓기는 새'가 되었다. 이 시는 현대 사회의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을 비판하고 있으며, 물질문명의 혜택과 관련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성북동 산에 새로 생긴 번지로 인해 본래 살던 비둘기의 삶의 터전이 없어 졌다고 했으므로 새로 생긴 번지는 비둘기의 터전을 빼앗은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⑤ 이 시는 196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현대 문명이 큰 발전을 이룬 이면에 존재했던 자연의 파괴와 인간 소외 현상이라는 부작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③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터전에서 쫓겨나는 비둘기는 파괴되는 자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개발로 인해 번두리로 쫓겨나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도 있다.

3 서술자의 위치는 소설을 감상하거나 창작할 때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말모이」에서 '창씨', '황국 신민', '국민총력조선연맹', '친일' 등의 단어들은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② 「말모이」에서 정환은 우리말 사전 편찬을 막으려는 일제와 갈등한다.
③ 「말모이」에서 박길남이 쓰는 언어가 일본어라는 것, 일본 경찰의 방문에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 등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사회적 상황을 알 수 있다.
④ 「말모이」의 공간적 배경이 '경성'인 것을 통해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4 문학 작품은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창작되므로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면 작품의 의미와 주제, 작가의 의도 등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259쪽

- 1 ④ 2 ㉠ 고지식하다 ㉡ 녹초

1 ㉡에 들어갈 단어는 누군가의 물음에 '의지와는 관계없이, 순

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반사'가 적절하다. '반영'은 '빛이 반사하여 비침.' 또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이 나타남. 또는 어떤 현상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2 여우의 거짓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은 황새를 설명할 말로는 '고지식하다'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여름 땀벌로 인해 짧은 시간에 힘을 못 쓰는 상태가 된 것을 나타내는 말로는 '녹초'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262~265쪽

- 01 ④ 02 ① 03 판수를 '동지'라고 한 것 04 ④
05 ⑤ 06 ② 07 ② 08 ⑤ 09 일제는 우리말과 우리글에 관련된 활동을 극심하게 탄압했다. /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며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 10 ④ 11 ⑤ 12 ④ 13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연이 파괴되고, 원래 주민들이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나가거나 소외되었다. 14 ④

01 (가)의 정환의 말에서 친일을 하는 조선인들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으며(ㄴ), (가)의 박길남의 모습에서 일본이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여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할 줄 모르는 상황을 알 수 있다(ㄷ). 또한 (다)의 사전을 완성하려는 조선어학회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말을 지키는 동시에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ㄹ).

02 (가)에는 현재의 정환이 과거에 경성역에서 박길남이라는 소년을 마주쳤던 경험을 떠올리는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 ② 박길남은 조선 사람이면서도 조선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음을 드러낸다.
③ 정환은 이미 가고 없지만, 판수는 정환이 두고 간 잡지책에 쓰인 '동지'라는 말에 정환의 사과를 받아들인다.
④ 이 작품의 갈래는 시나리오로, 작품의 서술자 역할을 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⑤ 판수 패거리는 조선어학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물들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개념 플러스

순행적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구성 방식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구성의 형태

- 평면적 구성, 순차적 구성 등으로도 불림.

역순행적 구성

사건을 서술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현재-과거', '현재-과거-현재'와 같이 이어지는 구성의 형태

03 [서술형] 정환이 판수에게 ‘김판수 동지께’라고 적은 잡지책을 주고 간 것은 판수를 뜻이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였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판수 역시 정환에게 동지 의식을 느끼며 조선어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04 판수는 조선어학회가 사투리 수집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돕기 위해 감옥소 식구들(판수 패거리)을 데려온다. 이들은 판수의 도움 요청에 응하여 온 것이지 사투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우철은 사투리 수집의 어려움으로 사투리를 제외하자고 주장하지만, 조 선생은 사투리의 중요성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반대한다.
- ② “마산, 울산, 부산 사투리가 다르고, 광주, 목포, 벌교 사투리가 또 다르네요.”라는 정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다들 몸 사리기 바빠서 돕겠다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라는 박훈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판수는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조선어학회의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05 잡지책은 정환이 판수를 찾아올 핑계로 사용한 것으로, 판수가 이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나)에 판수의 자녀인 덕진과 순희가 등장한다.
- ② (나)에서 판수는 정환이 쓴 ‘동지’라는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
- ③ (라)에서 판수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에게 감옥소 식구들을 소개한다.
- ④ (라)의 판수의 대사를 통해 판수가 정환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라)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라는 정환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판수의 도움이 고맙고,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말한 ‘열 사람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07 극장 안의 판수 패거리, 조선어학회 회원들, 조선어 교사들 모두의 다급한 움직임을 통해 이들 역시 위험한 상황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극장 안의 사람들은 표준어 공청회를 하다가 일본 경찰들이 쳐들어오자 사전 원고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다.
- ③, ⑤ 사람들이 극장 안에 남기로 결정한 것은 정환과 판수가 원고를 무사히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사전 원고를 가지고 떠나는 정환과 판수의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 ④ 문을 부수는 일본 경찰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을 무력으로 억압했던 일제 강점기의 상황이 드러난다.

08 ㉡는 말을 모으는 일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원고를 지키고자 한다.

오답 해설

- ① ㉡는 말모이의 중요성에 공감하기 전이다.
- ② ㉡는 우리말에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 ③ ㉡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④ ㉡는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려는 조선어학회 사람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돕는다.

09 [서술형] 가로막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일본 경찰의 모습과 거친 폭력에도 경찰들을 막아서는 사람들의 모습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그런 상황에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10 2연에서는 ‘채석장 포성’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1연에서는 ‘성북동 산’이라는 실제 지명을 사용하였다.
- ② 1연에서는 ‘가슴에 금이 갔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비둘기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③ 2연에서는 비둘기를 인간처럼 ‘향수를 느끼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 ⑤ 3연에서는 비둘기가 사랑과 평화의 새였던 과거와 쫓기는 새가 된 현재를 대조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11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진실이나 깊은 의미가 담긴 것을 ‘역설’이라고 한다. 「성북동 비둘기」는 상징적 의미의 ‘비둘기’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으나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성북동 비둘기’는 개발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 또는 소외되는 인간의 모습 등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 ② 이 시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성북동 비둘기’는 1960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 ④ ‘~다’, ‘사람’ 등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2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개발로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고 있던 비둘기의 번지가 없어졌다.

13 [서술형] 〈보기〉는 196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연 파괴와 인간 소외라는 부작용이 생겨났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의 ‘번지가 없어졌다’는 말은 곧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자연이 사라지고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마당’은 넓적하여 비둘기가 ‘조용히 앉아 콩알’을 먹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었지만, 지금의 비둘기는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구공탄 굴뚝 연기에 향수를 느낀다. 따라서 ‘마당’은 이전에 비둘기가 누리던 여유로운 공간인 반면, ‘지붕’은 내몰린 비둘기가 어쩔 수 없이 잠깐 머무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 ① ‘지붕’에 대한 비둘기의 그리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지붕’은 비둘기에게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다.
- ③ ‘채석장’은 비둘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공간이 아니며, ‘지붕’ 역시 비둘기가 잠시 피난하듯 앉은 공간이다.
- ⑤ ‘성북동 산’의 예전 모습은 비둘기의 터전이 파괴되기 전의 모습이다. ‘지붕’은 터전이 파괴되어 갈 곳이 없어진 비둘기가 잠시 앉은 공간이다.

(2)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화

개념 확인 **복** **복**

본문 266~267쪽

- 1 대화 2 공감 3 상대방 4 ㉠ 5 갈등
6 갈등 조정 7 ㉠ 8 ㉡

이해 + 탐구 | 응용 문제

본문 270~277쪽

- 1 ㉡ 2 ㉠ 3 ㉡ 4 ㉠ 5 ㉠ 6 ㉠ 7 공
감 8 ㄱ, ㄴ, ㄹ 9 ㉠ 10 상대방과 협력하여 갈등
을 해결할 수 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
다. 11 ㉢ 12 ㉡ 13 ㉢ 14 ㉢

- 1 마지막 부분의 “그래도 이번에 열심히 준비한 경험이 다음 시
험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성주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2 정원은 성주에게 공감하며 대화하고 있다. 공감하며 대화하기
는 상대방을 비판, 판단, 평가하는 대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적
으로 반응하는 대화 방식이다.

오답 해설

- ① 정원은 시험을 망친 것 같다는 성주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고 있다. 논리
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② 정원은 성주의 성적을 향상시킬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③, ④ 정원은 “정말?”, “시험을 망쳤어?”, “그렇구나.”, “맞아.” 등의 표현을 사
용하여 사실 여부 판단이나 평가 없이 성주의 말에 동의하며 호응하고 있다.

- 3 눈 맞추기, 상대방의 말 요약하기, 감정 파악하여 말해 주기,
맞장구치기 등은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들이다. 새로운 대
화 주제를 꺼내는 것은 상대방과 공감하는 대화의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① 정원은 공부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필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과서를 꼼꼼히
보았다는 성주의 말을 “이번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라고 요약하
여 말하고 있다.
- ③ 정원은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망치게 된 성주의 감정에 공감하여
“정말 아쉽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 ④ 정원은 상대방의 말에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정원은 성주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몸짓을 사용하여 공감하며 대화하고 있다.

- 4 정원과 대화한 뒤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겨 정원에게
고마워하는 성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과의 신뢰감이나 유대감을 높이고, 관계를 친밀하게 만
든다.

- 5 민서는 다운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있으며 공감하는 대화 태

도도 보이지 않는다. 다운은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민서
의 태도에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서와 관
계가 친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 6 민서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하며 대화하는 태도이다.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이
므로 문제 해결 방법의 제시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대화 주제와 관련이 없는 급식 반찬 얘기를 꺼내는 민서의 모습은 상대방
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② 민서는 승우와의 갈등으로 걱정하고 있는 다운의 감정이나 갈등 상황을 대
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 ③ 민서는 승우와의 갈등으로 인해 걱정스러운 마음을 공감받고 싶은 다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④ 민서는 다운의 상황을 ‘사소한 일’로 평가하며 다운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
하고 있다.

- 7 ㉠은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 반응, ㉡은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반응이다. ㉠에는 어제 매운 치즈 떡볶이를 못 먹은
것에 대한 민서의 감정이, ㉡에는 승우와의 사이가 멀어질 것
을 걱정하는 다운의 감정에 대한 공감이 드러나 있다.

- 8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공
감적 반응을 하는 대화 방식이다.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나 문
제 해결책 제시는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 9 정원은 같이 놀고 싶어 하는 지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지원의 상황을 우선시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10 [서술형] 정원은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
에게 자신의 상황과 감정, 요청 사항을 전달하였다. 정원의
말을 들은 지원이 정원의 요청에 동의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에 제시된 두
사람의 말을 통해 지원과 정원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진호는 답답한 교실의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고, 지유는 바
깁의 더운 공기가 교실로 들어와 교실이 더워지는 것이 싫어
서 창문을 닫고 싶어 한다.

- 12 지유는 진호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ㄱ). 교
실 창문을 세게 닫는 행동은 갈등을 악화시키는 비언어적 표
현이다(ㄴ). 지유는 창문을 열고 싶어 하는 진호의 입장을 고
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ㄹ).

오답 해설

- ㄴ.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을 한 사람은 진호이다.
ㄹ. 지유는 “창문 닫아.”라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 13 ㉠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표현인 반
면, ㉡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 ① ㉠은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반응이다.
 ② ㉠은 자신의 상황을 감정적으로 전달하여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④ ㉠은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창문을 세게 닫음)을 사용한 반면,
 ㉡은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부드러운 시선으로 눈을 맞춤)을 사용하고 있다.
 ⑤ ㉠의 “창문 닫아.”, ㉡의 “창문 닫으면 안 될까?” 모두 자신이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14**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에 대한 공감감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공감해서는 갈등을 조정할 수 없다.

적용 + 성찰 | 응용 문제

본문 278~281쪽

1 ⑤ **2** ⑤ **3** ③ **4** ①, ②, ③ **5** ⑤ **6** 국어 시간 모둠 활동 때문에 모둠 친구들과 발표 내용에 대해 대화하고 자료를 조사하느라 휴대 전화를 쓴 거예요. 제가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면 노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저를 못 믿으시는 것 같아 서운해요. 게임이나 동영상을 보는 건 하루 한 시간 이내로 사용할게요. 제가 알아서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믿어 주시면 좋겠어요.

- 1** 상대방의 말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은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듣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②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며 듣는 것이 중요하다.
 ③ 맞장구치는 표현은 상대방이 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효과가 있다.
 ④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여야 한다.

- 2** 공감하며 듣기의 핵심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 가장 적합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여 그 감정에 공감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 3**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실천할 때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4** 친구의 고민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문제 해결 방법의 제시는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이 아니다. 상대방의 말 요약하기는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 중 하나이지만, 제시된 대화하기 일지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 5** 공감하며 대화하기 일지를 쓰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들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6 [서술형]**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아빠와 민영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자신이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극에서 이어질 민영의 말을 정리한다.

어휘력 쑥쑥 | 응용 문제

본문 283쪽

- 1** 협력 **2** ㉡ 간담이 서늘하다. ㉢ 얼굴이 화끈거린다.

- 1** 공감하며 대화하거나 갈등 조정하기는 모두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말하기로, 방법을 잘 알고 대화한다면 좋은 대화 상대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 2** 목이 메다: 슬픔이나 감격 때문에 감정이 북받치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
 간담이 서늘하다: 몹시 놀라거나 무서워서 오싹한 상태
 발을 동동 구르다: 조금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얼굴이 화끈거린다: 부끄럽거나 창피한 마음의 상태

소단원 핵심 문제

본문 286~287쪽

01 ③ **02** ② **03** ④ **04** ㉠ 보고 있던 휴대 전화를 집어넣음. / 성주와 눈을 맞춤. / 고개를 끄덕임. / 안타까운 표정을 지음. ㉡ 네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겠다. **05** ⑤ **06** ① **07** ②
08 ㉢ 교실의 창문을 세게 닫는다.-진호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므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 화를 내며 큰 목소리로-지유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므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 01** (가)의 성주와 (나)의 다운 모두 상대방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성주는 정원의 듣기 태도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② (가), (나) 모두 공감적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④ 다운에게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가), (나) 모두 상대방의 말을 오해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 02** 성주와 정원 사이에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정원은 성주의 말을 들을 때 눈 맞춤, 맞장구, 고개 끄덕임 등을 보이며 성주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
 ③ 성주와 정원은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적극적,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④ 정원의 말하기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⑤ 두 사람의 마지막 말을 통해 이 대화가 두 사람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 03 이 대화에서 민서는 다운의 고민을 들어주는 입장이므로 자신이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갈등 조정하기 방법에 해당한다.
- 04 [서술형] 비언어적 표현이 (가)에서는 지시문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정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지시문에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는 비언어적 표현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원의 말 중 “정말 아쉽겠다.”는 시험 결과가 기대보다 못했을 때 성주가 느낀 감정을 파악하여 표현한 것이다.
- 05 부적절한 준언어적 표현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된 것은 (나)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 06 정원은 지원에게 “내가 과제를 할 때는 내가 장난치지 말고 잠시 다른 곳에 가서 놀고 있으면 좋겠어.”라고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였다.
- 07 ㉠과 ㉡ 모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 존중 없이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표현으로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차이점은 ㉠은 ‘너는 항상 그렇게 이기적이야.’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비난하지만, ㉡에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평가와 비난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 08 [서술형] (나)에서 ‘교실의 창문을 세계 닫는다.’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비언어적 표현, ‘화를 내며 큰 목소리로’는 언어적 표현과 동반되어 나타나므로 준언어적 표현이다. 두 표현 모두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갈등을 심화시키므로 갈등 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표현들이다.

중간·기말 시험 대비

본문 294~299쪽

- 01 ㉢ 02 ㉢ 03 ㉢ 04 ㉠ 05 판수는 조선말을 버리고 일본 말을 쓰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판수는 돈처럼 쓸 수도 없는 말을 왜 모으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말이나 일본 말이나 밥만 굶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므로 우리말을 버리라는 요구에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06 ㉢ 07 ㉢ 08 ㉠에는 앞으로 자신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정환의 말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에는 정환이 자신을 찾아와 사과한 것에 대한 기쁨의 감정이 나타난다. 판수는 정환이 찾아온 것이 기쁘지만, 이런 마음을 정환에게 들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환에게 원망의 말을 하며 냉대하고 있다. 09 ㉠ 10 ㉣ 11 ㉡ 12 ㉢ 13 ㉢ 14 정말요? 성북동 비둘기의 번지가 없어졌어요? 15 ㉡ 16 승우와의 사이가 멀어졌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얘기할 용기도 안 나서 속상하고 걱정되는구나. 17 ㉠

- 01 (나)의 판수의 질문을 보면 판수가 표준어 공청회의 의미나, 표준어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2 일본의 경제적 수탈로 인한 조선인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해설
①, ④ (가)의 신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의 폐간 명령서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가)에 나타난 동익의 동료 문인들에 관련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 03 ㉢의 ‘황국’은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 즉 일본을 의미한다.
- 04 자영은 사전을 만들어 우리말을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 조 선생은 사투리 역시 조선의 말이고 자산이므로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 우리말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해설
② 공동체 정신에 대한 조 선생의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자영은 말을 모아 어디에 쓰느냐는 판수의 질문에 열성적으로 대답하고 있으므로 사전을 만드는 일에 대하여 여전히 의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자영은 우리말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전을 만들어서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⑤ 사투리에 대한 자영의 입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 05 [서술형] “할 일도 더럽게 없다니까. 돈을 모아야지, 말을 모아서 언다 쓴다고!”, ““도시락”이나 ‘벤토’나! 밥만 안 굶으면 되지, 뭘 상관이래!”라는 판수의 말을 통해 판수가 우리말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06 경상도 교사는 표준어를 정하고 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기준이 되므로 표준어를 대충 서둘러 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해설
①, ⑤ 전라도 교사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② 정환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④ 전라도 교사는 “또까 서둘러야겠당께.”라고 말하고 있다.
- 07 정환은 열 사람의 한 걸음이 걸음걸음 퍼져 나가면 세상을 바꾸고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민들레 홀씨로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
- 08 [서술형] ㉠과 ㉡은 판수의 상반된 심리를 보여 준다. 판수는 정환의 앞에서는 화가 덜 풀린 듯 정환을 냉정하게 대하지만, 사실은 정환이 자신을 찾아와 사과하는 상황이 기쁘고 기쁘다. 이러한 판수의 심리가 ㉠과 ㉡에 반영되어 있다.
- 09 판수는 정환이 ‘열 사람의 한 걸음’이 가지는 힘을 믿고 그 힘으로 사전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도 그 한 걸음을 보태기 위해 자신의 패거리 사람들을 데려와 사전을 만드는 일을 돕는다.

오답 해설

- ② 판수가 패거리를 데려와 준 덕분에 부족한 사투리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므로 정환은 판수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 ③, ④, ⑤ 말이 꼬였을 뿐 판수는 정환이 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였으며 동참하고자 한다.

10 제시된 글에서는 우리말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총독부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말 사용을 일부 허용하였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일본 경찰이 표준어 공청회를 습격하고 사람들을 탄압하는 모습을 통해 일제가 우리말 사용을 통제하고 감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1 일본 경찰들이 곧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판수는 도망치지 않고 문을 막으며 사람들의 대피를 지시하고 원고에 대해 묻는다. 이를 통해 판수가 자신의 안전보다 말모이 원고를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경찰들의 고향과 발소리는 분위기의 긴장감, 긴박함을 더욱 고조시킨다.
- ③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은 원고를 먼저 생각하여 남겼다는 선택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려는 전라도 교사의 마음이 반영된 말이다.
- ④ 조선어 교사들에 대한 걱정으로 함께 남아 문을 막겠다는 자신의 선택을 가볍게 표현한 말이다.
- ⑤ 봉두는 다른 패거리들과 함께 출입문으로 돌아가 문을 막는 데 힘을 보탠다.

12 정원은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올바른 방법과 태도로 성주와 대화하고 있으며 성주에게 평가나 조언을 해 주는 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13 개발로 번지가 없어진 비둘기가 성북동 주민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 보인다는 표현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성북동이 개발되어 자연이 파괴되고 살 곳을 잃어도 여전히 인간에게 우호적인 비둘기의 모습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 ① 개발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는 상황을 ‘돌 깨는 산울림’이라는 청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슴에 금이 갔다’는 표현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가슴이 금이 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개발로 인해 살던 터전에서 쫓겨나고 소외된 사람들의 상실감과 상처를 보여 준다.
- ④ 1연에서 성북동은 ‘돌 깨는 산울림’이 가득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는 공간으로 그려졌다. ‘메마른’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개발로 인해 자연이 파괴된 성북동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⑤ 인간의 개발로 인해 파괴된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한 ‘성북동 비둘기’를 ‘쫓기는 새’로 표현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대신 도시화와 산업화를 선택한 인간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4 [서술형] ㉘는 맞장구치기와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여 말하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상대방이 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15 민서의 휴대 전화를 보며 대화하는 행동, 지유의 교실 창문을 세계 닫는 행동은 모두 비언어적 표현으로, 이 행동으로 인해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6 [서술형] 앞의 대화 내용을 통해 다운은 승우와 서먹해졌는데 이유를 몰라 속상하고 이에 대해 승우와 대화를 해 보고 싶으나 용기가 없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17 <보기>는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자신이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여 말한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②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바라는 바를 요청하고 있다.
- ③ ‘10분 정도만 창문을 열어도 될까?’라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하루 종일 교실 환기를 하지 않아서 답답한 느낌이 들어.’라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을 ‘이기적’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표현 대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원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서술·논술형 문제

본문 300~301쪽

01 독립을 바랐으나 변절하여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 조선 사람이면서도 조선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생겨났다.

02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사전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 선생, 조선어학회 회원들, 전국 각지에서 사투리를 모아 조선어학회로 보낸 신의주중 학생들과 수많은 사람들, 일제의 눈을 피해 사투리 우편물을 보관했던 우체부들, 판수와 판수 패거리, 조선어 교사들 등 민들레 같은 수많은 조선 민중의 한 걸음들을 모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03 ㉘ 일제 강점기라는 어려운 ㉙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 우리말 사전을 완성하기 위해 말과 마음을 모았던

04 민서가 다운의 의견이나 감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관심해서 / 민서가 다운의 고민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서

05 다운이 민서에게-민서야, 나는 승우와의 일로 고민이 큰데 네가 내 말을 제대로 들어 주지 않고 무관심하니까 내가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 주면 안 될까? 민서가 다운에게-다운아, 내가 너의 감정과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대화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꺼내서 미안해. 승우와 서먹해져서 속상하겠다.

06 ㉙은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여 반응하는 대화’인데 ㉙에는 다운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㉙을 말할 때의 민서는 상대방이 아닌 휴대 전화를 보고 있다. 따라서 ㉙이 상대방이 계속 말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평가 요소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 파악하기

- 01 정환의 아버지는 독립을 바라며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으나 결국 친일을 하게 되었고, 박길남은 조선인이지만 조선말을 전혀 할 줄 모른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친일 변절자나 우리말 말살 정책과 같은 일제 강점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정환의 아버지와 박길남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회·문화적 상황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정환의 아버지와 박길남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상징적 소재의 의미 이해하기

- 02 ‘민들레’는 평범하고 흔하지만 함께 모여 큰 힘을 낼 수 있는 존재를 상징한다. 이러한 민들레의 힘은 ‘열 사람의 한 걸음’의 힘으로 표현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민들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를 찾아 제시하였고, 민들레의 상징적 의미와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잘 연결하여, 정환에 대한 조연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5점
민들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를 찾아 제시하였으나, 민들레의 상징적 의미와 ‘열 사람의 한 걸음’이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한 경우	10점
민들레의 상징적 의미와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잘 연결하였으나, 민들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제시한 경우	7점
민들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민들레의 상징적 의미와 ‘열 사람의 한 걸음’의 연결성도 부족하나 정환에게 의미 있는 조연을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작품의 주제 이해하기

- 03 ㉠은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사회·문화적 상황, ㉡는 작품의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다. (나)에 드러난 조 선생의 죽음, 공청회 개최의 어려움 등을 통해 일제가 우리 민족과 우리말을 탄압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말 사전을 완성하기 위해 각자의 힘을 보태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과 ㉡에 들어갈 내용을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갈등의 원인 파악하기

- 04 민서가 다운의 고민에 공감하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로 대화를 하자, 다운은 “어, 그렇구나.”라고 대답하며 대화를 더 이상 이어 가지 않는다. 즉 (가)의 대화로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갈등의 원인은 민서의 대화 태도이다.

채점 기준	배점
갈등의 원인으로 민서의 대화 태도를 제시하고, 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경우	10점
갈등의 원인으로 민서의 대화 태도를 제시하였으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 방법 이해하기

- 05 다운의 고민에 무관심한 민서의 대화 태도를 갈등의 원인으로 볼 때,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운은 민서에게 느낀 서운함과 속상함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전해야 한다. 반대로 민서는 다운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갈등 조정하기의 대화 방법을 적용하여 다운과 민서의 말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0점
갈등 조정하기의 대화 방법을 찾았으나, 다운과 민서의 말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

평가 요소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태도 판단하기

- 06 민서가 말한 “그래?”는 언어적 표현만 보면 <보기>에서 설명한 맞장구치는 표현에 속하지만, 앞에 제시된 비언어적 표현(휴대 전화를 보며)과 함께 보면 맞장구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라는 표현이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표현 방법이 되려면 그 안에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와 상대의 말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자신의 의견을 적절한 이유를 들어 서술하고, <보기>의 내용을 인용한 경우	15점
자신의 의견을 적절한 이유를 들어 서술하였으나, <보기>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은 경우	10점
<보기>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나, 의견과 이유가 모두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	5점
맞춤법 규정에 어긋난 표현이 나타난 경우 각각에 대하여	-0.5점